



5차 장로아카데미

· 2018년 2월 27일 - 5월 29일 ·

1. 장로아카데미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장로의 영적 성숙과 리더십 개발을 돕는 학습공동체입니다.

2. 비전

예수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로

3. 목표

- 작은 예수 같은 장로, 예수를 바로 보여 주는 장로를 세운다.
- 교회와 국가를 섬기는 장로의 리더십을 훈련한다.
- 비전과 사역을 공유하는 친교 공동체를 형성한다.

4. 조직

박종길 목사(담당) 이장로 장로(대표)

전구영 장로(팀장) 김명현 장로(총무)

홍성호 장로 민문기 장로 유재홍 장로 권오습 장로 정운섭 장로

김경렬 간사 김경아A 간사

5. 학사운영방침

- 교육 수료의 기준에 합한 장로님께서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 초기에는 온누리교회 장로님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교육과정이나 추후 외부 교회 장로님들을 포함하는 공개강좌로 발전시켜가도록 한다.

6. 학습방법

성인학습방법론에 기초한 자기주도형 학습을 지향한다.

(1) 강의 자료 공유

-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인터넷, 모바일 모두 가능)에 “장로아카데미 커뮤니티”를 만들고 기간 중에 강의 자료, 토의 자료, 성경 구절, 참고 도서 등을 공유한다.
- 강의 내용은 동영상으로 녹화한 후 커뮤니티에 올려 공유한다.
- 강의를 돕는 핵심 성경 구절들을 올려서 나눔의 장으로 활용한다.
- 초청 강사가 안내하는 강의 자료나 참고 도서는 커뮤니티에 올려서 미리 예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토론 및 조별 발표

- 전체 참석자는 조별로 나누고, 각 조에 조장과 총무를 임명하여 섬기도록 한다.
- 강의가 끝나면 모든 조가 조별로 주어진 토의 내용에 대해 각자 토의를 하되, 사전 지정된 조는 당일, 토론 결과를 취합하여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주도한다.
- 당일의 토론 내용과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하여 커뮤니티에 올린다.

(3) 친교

- 장로 아카데미 기간 중 참가 장로님들 간에 서로를 알아가는 것도 하나의 과정 목표로 삼고, 서로 중보 기도하며, 교제한다.

7. 교육과정

- 일 시 : 2018년 2월 27일 - 5월 29일, 매주 화요일 오후 7:00(-9:00)
- 장 소 : 서빙고 순형홀
- 구 성 : 12강좌 (각 2시간), 영성수련회(1일)

커리큘럼

영역	주제
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누리교회 비전과 목회철학 • 교회론 및 교회사 • 수료예배 및 수료식 / 감사와 친교
개인영성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로의 영성과 리더십 (장로의 역할과 책임 및 행동) • 관계와 소통 • 일상생활의 신학과 영성
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s29와 온누리 선교 • 사회선교와 긍휼사역 • 가정과 장로의 역할
국가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s29와 온누리 선교 • 사회선교와 긍휼사역 • 가정과 장로의 역할

8. 영성수련회

- 일시: 2018. 3/10(토)
- 장소: Acts29 비전빌리지

9. 수강 대상 및 자격

- 대상 장로님에는 사역장로 시무장로, 명예장로, 협동장로를 포함한다.
 - 한 회(기)의 훈련인원은 아카데미의 지속성과 교육효과를 고려하여 30명 내외로 한다.
 - 선정기준 : 장립연도와 연령을 고려하여 실행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 연령이 많으신 장로님은 순서에 관계없이 본인의 참여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10. 강의일정 ※ 영성수련회는 필히 참석하셔야 합니다.

일 자	과 목	강 사	분 야
1	2/27(화) 개강예배 : 온누리교회 비전과 목회 철학	이재훈 목사	교회
	3/10(토) 영성수련회(양지 비전빌리지) : 성령 · 기도 · 말씀 · 친교		
2	3/13(화) Acts29와 온누리선교	박종길 목사 김홍주 목사	교회
3	3/20(화) 장로의 영성과 리더십	이장로 교수	리더십
4	3/27(화) 일상생활의 신학과 영성	방선기 목사	교회
5	4/3(화) 바람직한 가정과 장로	김성묵 장로	국가·사회
6	4/10(화) 관계와 소통	이의용 교수	리더십
7	4/17(화) 다음세대의 이해와 교회	최셋별 교수	국가·사회
8	4/24(화) 과학기술과 사회의 변화	이재규 교수	국가·사회
9	5/1(화) 한국교회사와 장로교회	임희국 교수	교회
10	5/8(화) 사회선교와 긍휼사역	노규석 목사	사역
11	5/15(화) 고령사회와 시니어사역	노치형 목사	사역
12	5/22(화) 특별교제의 시간	참가자 전원	리더십
13	5/29(화) 수료예배 및 수료식 / 감사와 친교	이재훈 목사	교회

11. 영성수련회 일정표

시 간	내 용	강 사
08:30	서빙고 온누리교회 출발	김명현 장로
08:50	버스이동 : 양재 세븐일레븐 앞 승차	민문기 장로
08:50-10:00	양지 비전빌리지로 이동	민문기 장로
10:00-10:10	등 록	사회자
10:10-10:25	찬 양	유재홍 장로
10:25-10:30	기 도	이창남 장로
10:30-11:20	말 씬	홍정길 목사
11:20-11:40	중보기도	
11:40-12:00	영상 시청 : 조별 참가자 자기소개 (조별진행)	정운섭 장로
12:00-13:20	조별 식사 및 교재	조장
13:20-13:30	찬양	유재홍 장로
13:30-14:20	장로의 자기 성찰과 교제	홍성호 장로
14:20-14:30	조별 구호 제창	사회자
14:30-14:50	휴 식	
14:50-15:00	찬 양	유재홍 장로
15:00-15:20	성경통독	전구영 장로
15:20-15:40	온누리교회 장로 선교사 ※ 故 박승철, 김혜정, 故 조성록, 유은필, 김광선, 이병현	
15:40-15:50	폐회사·폐회기도	이장로 장로
15:50-16:15	하목사님 기념관 방문 (추모사/기도)	윤현덕 장로
16:15-16:25	귀가 준비	
16:25-17:35	버스이동	정운섭 장로
17:35	양재역 중간 하차	민문기 장로
18:00	서빙고 온누리교회 도착	민문기 장로

5차 장로아카데미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박종길 목사

온누리교회 부목사



김홍주 목사

온누리교회 부목사



이의용 교수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문학박사
생활 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노치형 목사

온누리교회 부목사



이재규 교수

연세대학교 석좌교수(KAIST 명예교수)
세계정보시스템학회(AIS) 회장 역임
연세대학교 및 KAIST 밝은인터넷 연구센터장



노규석 목사

온누리교회 부목사



방선기 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은혜와영광교회 담임
E.LAND 사목 / 직장사역연합 대표



최셋별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사회학회 총무위원장
전국여교수연합회 이사



김성묵 장로

온누리교회 장로
가정사역자
사)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이사장



임희국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교회사)
동신교회(서울동노회) 교육지도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장통합)총회 역사위원회 및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장로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기독교경영연구원장, 한반도평화연구원장
現 한국리더십학교장, 장로회신학대학교 겸임교수



5th 장로아카데미

온누리교회 비전과 목회 철학 | 이재훈 목사 | 012p

Acts29와 온누리선교 | 박종길목사·김홍주 목사 | 020p

장로의 영성과 리더십 | 이장로 교수 | 034p

일상생활의 신학과 영성 | 방선기 목사 | 058p

바람직한 가정과 장로 | 김성묵 장로 | 062p

관계와 소통 | 이의용 교수 | 068p

다음세대의 이해와 교회 | 최셋별 교수 | 078p

과학기술과 사회의 변화 | 이재규 교수 | 084p

한국교회사와 장로 교회 | 임희국 교수 | 100p

사회선교와 공흥사역 | 노규석 목사 | 110p

고령사회와 시니어 사역 | 노치형 목사 | 128p

수료예배 및 수료식 | 이재훈 목사 | 132p



온누리교회 비전과 목회철학

강사 : 이재훈 목사

마태복음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Acts29와 온누리선교(1)

강사 : 박종길 목사

선교적 사명 | 마태복음 28:18-20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름다운 선교 | 로마서 10:13-15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서론

본론

1. 온누리교회 비전

(1) 5대 목표

- ① 성경 중심의 교회
- ② 복음 중심의 교회
- ③ 선교 중심의 교회
- ④ 긍휼을 베푸는 교회
- ⑤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

(2) 2,000/10,000

(3) Acts29

(4) 예수 바보 행전

2. 온누리 교회의 목회철학

(1) 이상적인 교회의 특징

- ①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교회
- ②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교회
- ③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

(2) 온누리 교회 공동체의 특징

- ① 예배 공동체
- ② 성령 공동체
- ③ 선교 공동체



3. Acts29

(1) 국내 캠퍼스(10)

서빙고, 양재, 부천, 수원, 대전, 남양주, 평택, 인천, 강동, 양지

(2) 해외 비전교회(30)

얼바인, 로스엔젤레스, 샌디에이고, 산타모니카, 괌, 보스턴, 네이퍼빌 시카고, 노스 시카고, 뉴욕 IN2, 뉴저지, 포틀랜드, 앵커리지, 밴쿠버, 시드니, 오uckland, 동경, 오사카, 우에다, 요코하마, 야치요, 나고야, 교토, 아부다비, 베트남, 북경, 단둥, 대련, 상해, 장춘, 청도

4. 예수바보행전

(1) 예수바보가 누구인가?

- ① 예수님을 바로 보는 사람들이다.
- ②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로 보살피는 사람들이다.
- ③ 예수를 세상에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2) 위험한 교회

- ① 거룩한 절박함이 있는 교회이다.
- ② 선교적 사명감이 살아있는 교회이다.
- ③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이다.

(3) 낮아진 교회

- ① 예수님을 바라보는(unto christ) 교회가 되어야 한다.
- ② 예수님을 위한(for christ) 교회가 되어야 한다.
- ③ 예수님 같은(like christ) 교회가 되어야 한다.

(4) 연약한 교회

- ① 역경(adversity)이 변해 장점(advantage)이 되는 교회이다.
- ② 깨어짐(brokenness)이 변해 아름다움(beauty)이 되는 교회이다.
- ③ 위기(crisis)를 기회(chance)로 만드는 교회,
혼돈(chaos)을 창조성(creativity)으로 만드는 교회이다.

결론





Acts29와 온누리선교(2)

강사 : 김홍주 목사

선교적 사명 | 마태복음 28:18-20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름다운 선교 | 로마서 10:13-15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2000/1만 비전” “ACTS 29 비전”

선교의 기초위에 세워진 온누리 교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모든 종족에게 교회를
(마28:19-20)

1985년 10월 6일 창립

선교역사(1)

Onnuri

- ▶ 태동기(1984-1985)
 - ✦ ‘연예인 교회’ 사임
 - ✦ 영국에서 선교사 훈련 :WEC, 런던 Bible Collage
 - ✦ 12가정 훈련
 - ✦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시작: 이재환(Gambia), 변재창(Japan) 선교사 등 후원 협력
 - ✦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준비
 - ✦ ‘선교 공동체’ 선포

선교역사(2)

▶ 개척기(1985-1993)

- ✦ 78명의 성도로 창립예배(85.10.06)
- ✦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 ✦ 전교인 낙도 Outreach 시작(‘85,‘86)
- ✦ ‘해외 선교헌금’작정 시작(‘86)
- ✦ 두란노 해외 선교회-TIM-창립(‘87)
- ✦ 한남동 기도 모임 시작(‘88)

선교역사(4)

▶ 성숙기(2002-2007)

- ✦ Onnuri 세계 선교 센터 개원(OWMC)
: 선교사 동원 및 훈련(2002)
-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교회 개척(2003)
- ✦ CGN TV 위성 방송 시작(2005)
- ✦ 안산M-Center 시작(2006)
- ✦ 비전교회 시작과 Net -Work 구축

선교역사(3)

▶ 성장기(1994-2001)

- ✦ 2000/10000 비전 선포
- ✦ 성령운동 시작(‘94)
- ✦ “7년 된 교인은 다 떠나라.”(‘94)
- ✦ Onnuri Mission(외국인 근로자)사역 시작(‘95)
- ✦ 이천만 훈련원 개원. 선교사 훈련(MTS) 시작(‘95)
- ✦ 15개 미전도 종족 입양 (‘96-’99)
- ✦ 박승철 선교사 순교(‘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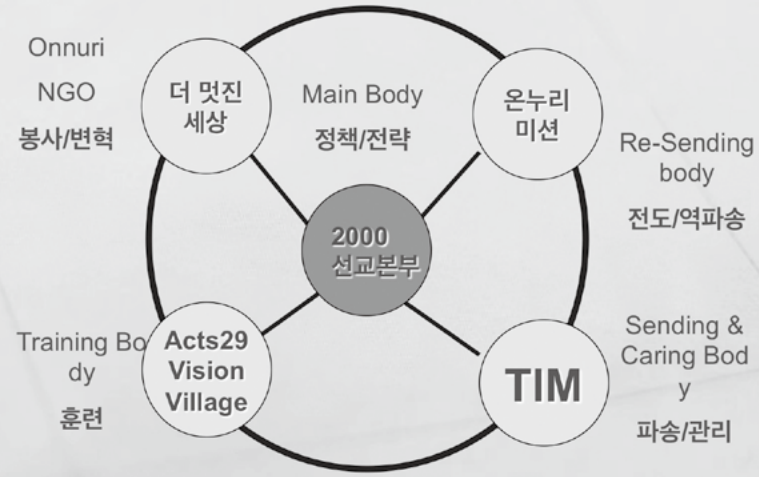
선교역사(5)

▶ 확장기(2008 이후)

- ✦ 현재 사역중인 선교사 912명 / 총 파송 1,949명
- ✦ 비전 교회 별 선교사 파송
- ✦ ‘LOVE SONATA’ : 일본, 대만
- ✦ 2000명 파송 2000개 교회 개척
- ✦ 융합선교 (2015년 ~)

선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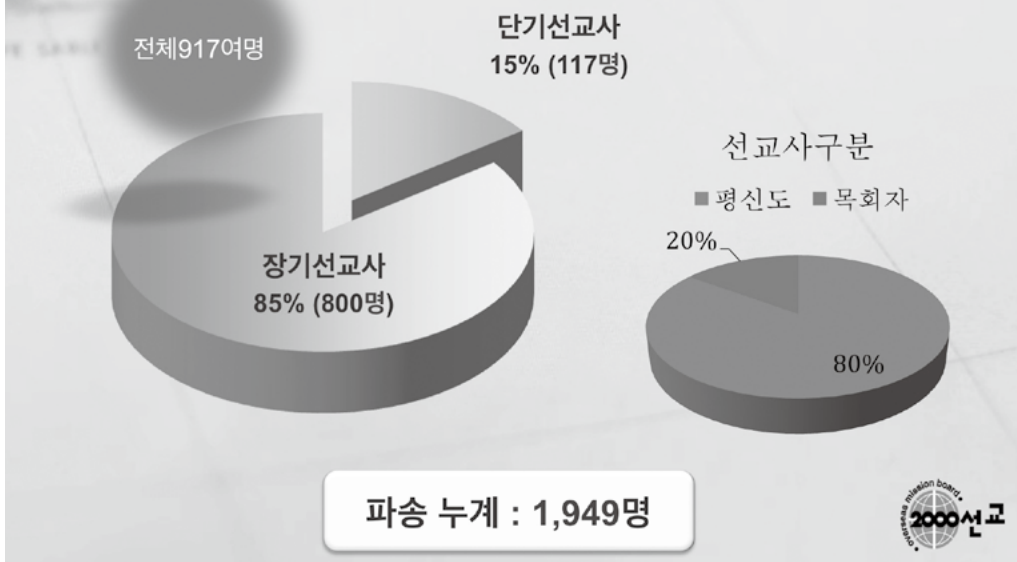
온누리교회 주요 선교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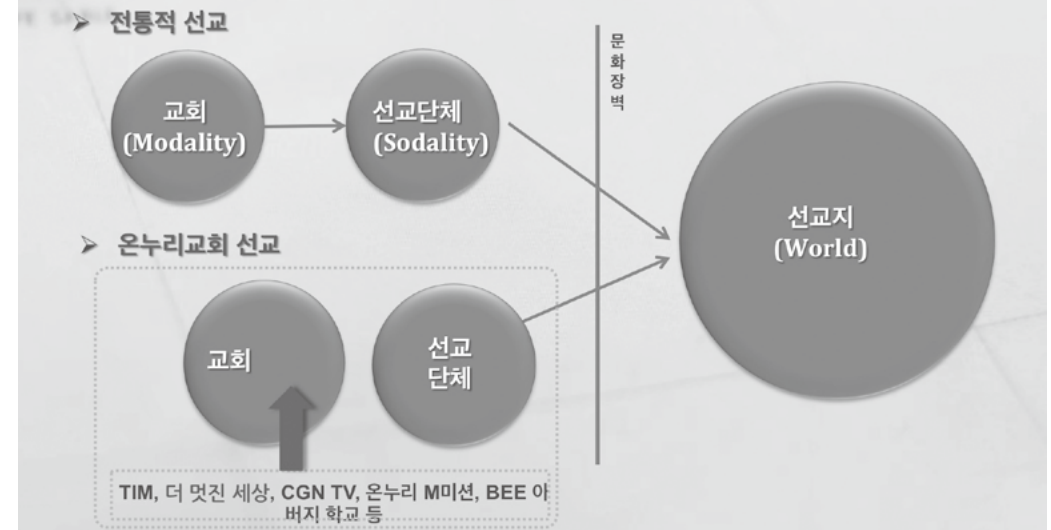
선교사 분포 현황



선교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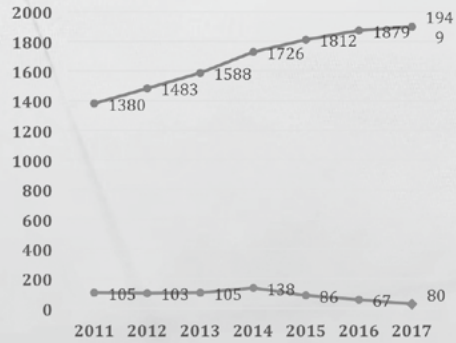


온누리교회 선교 모델



온누리 선교사 파송 추이 및 현황

VISION2000 : 2000명 선교사 파송
(현 917명, 누적 1949명)



온누리성도 37명 당 선교사 1명 파송
(성도 7만 명 기준)

선교현금작정액: 121억

2017년 해외 아웃리치 3541명

온누리선교 2기 방향



“개별적 선교를 넘어 팀단위 선교로”

1. 융합선교
전선교 채널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2. 계획적 선교사 파송
종족별/지역별 중장기 선교계획에 따른 선교사 파송

온누리교회 자원 분석 및 선교지역 분석

온누리교회 자원 : OK!



온누리교회 선교지역 : OK ?



[이슈]

1.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선교현장
2. 사역평가의 필요
3. 사전계획에 의한 선교사 파송
4. 선교사 케어 / 현장 사역조직 강화
5. 현장 선교사의 사역 전문성

융합선교의 정의

❖ 융합선교(Convergence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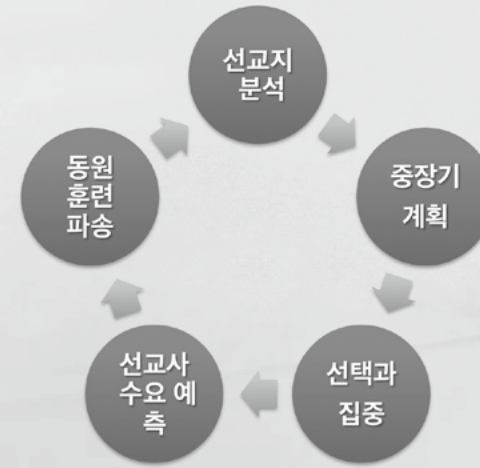
각 교회와 선교단체, 선교사들이
서로의 경계를 넘어
선교지의 필요와 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서로의 자원을 집중함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선교

계획적 선교 / 팀 단위 선교 / 협력 선교

융합선교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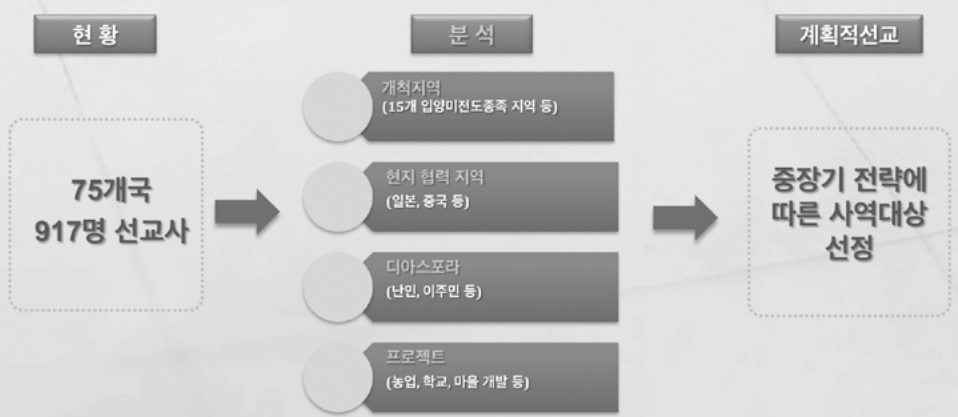
- 1 선교지별 필요조사 및 중장기계획
- 2 계획적 선교사 동원 및 파송
- 3 교회와 단체의 경계를 넘어 자원동원
- 4 현장협력 및 시너지 창출

중장기 계획에 따른 계획적 선교사 파송



새 방향에 따른 선교지 분석

선교연구소, 외부 리서치 기관, 지역 리더 등 활용



융합선교 결과





장로의 영성과 리더십

강사 : 이장로 교수

낮은 곳 더 낮은 곳 | 빌립보서 2:5-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작은 예수 | 에베소서 4:13-15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I. 리더십의 개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 10:42-45).

1. 리더십이란?

(1) 다양한 정의

사전에 따르면 리더십은 리더의 자리 또는 기능, 지도력, 지도자가 취한 행동 및 그로 인한 사건, 한 그룹의 리더들을 총칭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리더십은 많은 상이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도 < 표9-1>에서 보는 것처럼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Yukl, 2006).2)

표1. 리더십 정의

정 의	연구
리더십은 “개인의 행동이며... 집단의 활동을 공유된 목표로 향하게 한다.”	Hemphill & Coons(1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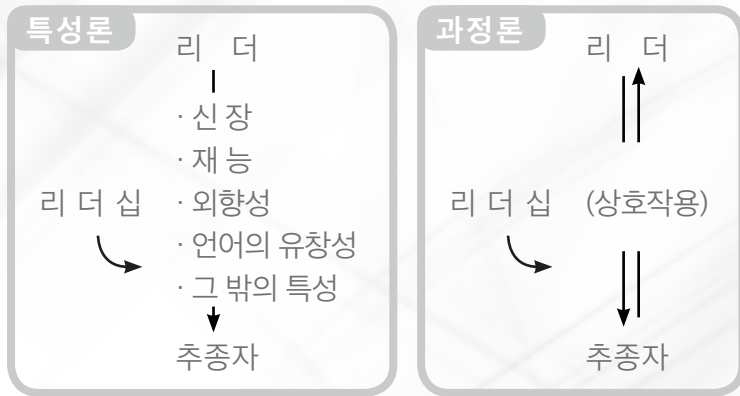
리더십은 “조직의 일상적인 지시에 기계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넘어서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Katz & Kahn (1978)
“리더십은 개인이... 부하들의 동기를 자극하고 끌어들이며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도적, 정치적, 심리적, 그리고 기타의 자원을... 동원할 때 발휘된다.”	Burns (1978)
“리더십은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성공적으로 다른 사람의 현실을 구성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Smircch & Morgan (1982)
“리더십은 목표를 성취하도록 조직화된 집단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Rauch & Behling (1984)
리더십은 비전을 명확히 하고 가치를 구체화시키며, 그 안에서 일이 달성될 수 있도록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다.”	Richards & Engle (1986)
“리더십은 집합적 노력에 목적, 즉 의미 있는 방향을 부여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을 확대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Jacobs & Jacobs (1990)
리더십은 “문화 바깥으로 나가...보다 적응적인 진화적 변화 과정을 착수하는 능력이다.”	Schein (1992)
“리더십은 사람들이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몰입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Drath & Palus (1994)
리더십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동기를 부여하며 타인이 조직의 효과성과 성공을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능력이다.”	House et al. (1999)

출처 : Yukl,G.A.(2006)

(2) 리더십은 리더의 특성인가, 리더와 추종자의 상호작용 과정인가

다양한 리더십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리더십의 성격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하다. 특성론적 시각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리더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천부적 특성이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한다. Jago(1982)에 따르면, 특성론적 관점은 리더십을 ‘특별한 사람들만이 남들과는 달리 상이한 정도로 소유하고 있는 특성이나 속성’이라고 본다. 반면 과정론적 관점에서는 리더십은 상황 속에 존재하는 현상이고, 누구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서 리더십의 유형을 임명된 리더십과 자생적 리더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즉, 어떤 사람은 조직 내의 공식적인 직위를 가짐으로써 리더가 되는 반면, 조직 내 특정한 지위는 없지만 집단구성원들이 그에게 반응을 함으로써 자생적인 리더십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림 1.



출처:Northouse, P. G. (2007)

또 다른 질문은 리더십을 개인의 전문화된 역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된 영향력의 과정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이에 대한 하나의 견해는 너무 폭넓게 공유하면 집단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집단은 어떤 책임과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화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개인은 '리더'로 임명되며 다른 구성원들은 '부하'로 불리게 된다. 반면 리더십은 사회체계 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여 구성원 사이에 확산되는 영향력의 과정이라는 견해도 있다. 사회체계 내의 구성원 누구든 언제든지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으며 리더와 부하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리더십을 공유되고 확산된 과정으로 보는 연구자들은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영향력의 과정과 그 영향력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결정하는 상황과 조건, 그리고 집단과 조직에 대한 결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3) 리더십과 관리

리더십과정은 관리과정과 비슷하다. 리더십이 영향력을 포함하는 것처럼 관리 과정에서도 영향력이 행사된다. 또한, 리더십과 관리는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지향한다. 하지만 리더십은 관리와는 다르다. 개인이 관리자가 되지 않고도 리더가 될 수 있으며, 리더가 되지 않고도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Bennis와 Nanus(1985)는 "관리자는 일을 옳게 하는 사람들이며, 리더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Rost(1991)는 관리를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 관리자와 부하 사이에 존재하는 권한관계로 설명하였고, 리더십에 대해서는 진정한 변화를 달성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리더와 부하 사이에 존재하는 다방향의 영향력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Kotter(1990)는 관리와 리더십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였다. 관리의 주된 기능은 조직에 질서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인 반면, 리더십의 일차적 기능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는 조

직이 번창하기 위해서는 관리와 리더십 모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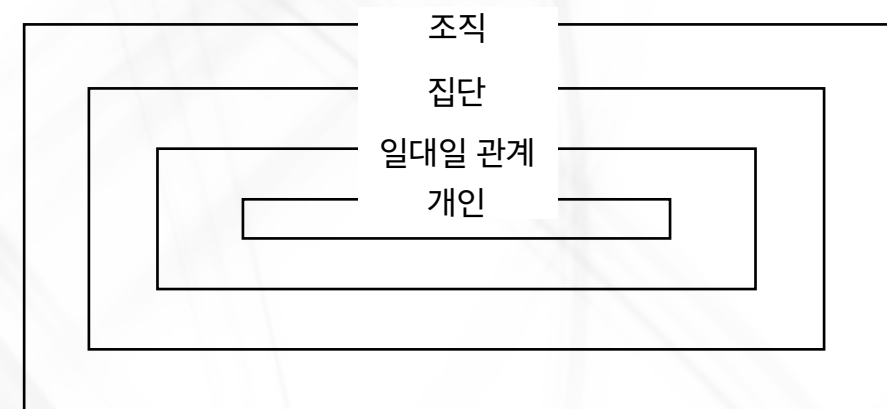
관리(질서와 안정성 추구)	리더십(변화와 발전 추구)
기획·예산 - 행동지침의 설정 - 계획표(시간표) 작성 - 자원의 배분	방향설정 - 비전설정 - 전체적인 상황 확인 - 전략설정
조직화·충원 - 조직구조 설계 - 직무배치 - 규칙과 절차 개발	목표를 위한 제휴·협력 - 목표에 대한 의사소통 - 헌신과 몰입 추구 - 팀과 연합체 추구
통제·문제해결 - 인센티브제도 수립 - 창의적인 해결책 - 수정조치	동기유발·의욕(영감) 고취 - 의욕(영감)과 활기 고취 - 부하에게 자율권 부여 - 미충족된 욕구 충족

출처: Kotter, J. P. (1990)

2. 리더십 연구의 분석 단위

리더십은 개인 내 과정, 일대일 관계 과정, 집단 과정, 조직 과정으로 구분하여 개념화 될 수 있다. (Yukl, 2006). 대부분의 리더십 이론들은 이러한 개념화 수준들 중 오직 한 가지 수준에서의 리더십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단순하면서 적용하기도 쉬운 다 수준 이론을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 2. 리더십의 과정과 초점



(1) 개인 내 과정 (intra individual process)

대부분의 리더십 정의는 개인 간의 과정(inter individual process)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한 개인 내부의 과정(intra individual process)에 초점을 맞추는 리더십 이론은 드물다. 리더 개인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주로 의사결정, 동기 및 인지의 심리학 이론 등을 사용해 왔다. 이 중에서도 자기관리 이론(self-management theory)은 개인이 어떻게 리더나 부하로서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자기관리는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개인적 목표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자기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 내 과정은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리더십 이론을 설명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으나 이러한 지식은 일대일 관계, 집단 및 조직 차원에서의 리더십 이론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2) 일대일 관계 과정 (dyadic process)

일대일 관계 이론은 리더십을 리더와 부하 간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핵심은 어떻게 부하와 협력적이고 신뢰하는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하가 더 동기부여 되고 몰입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들이다. 한 가지 예로서 리더-구성원 교환 이론(LMX: leader-member exchange)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대일 관계가 일상적인 교환에서부터 공유된 목표와 상호신뢰를 가진 협력적 제휴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일대일 관계 과정에 관한 연구는 종종 일대일 관계가 일어나는 상황적인 요소의 중요성이 과소평가 될 수는 있지만, 리더십 연구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함에는 틀림없다.

(3) 집단 과정 (group process)

리더십을 집단 과정으로 간주하는 관점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는 과업집단에서 리더가 집단 효과성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집단 효과성에 대한 이론은 리더십 과정과 리더십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기준에 대해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집단에 관한 연구에서는 업무가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얼마나 잘 조직화되어 있는지,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 역할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몰입하는지, 구성원이 성공적으로 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구성원이 과업목표를 달성하는데 상호 간 얼마나 신뢰하고 협력하는지 등 효과성의 중요한 결정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집단 접근에 있어서의 또 다른 핵심 연구과제는 공식 및 비공식 집단에서 나타나는 리더십을 설명하는 것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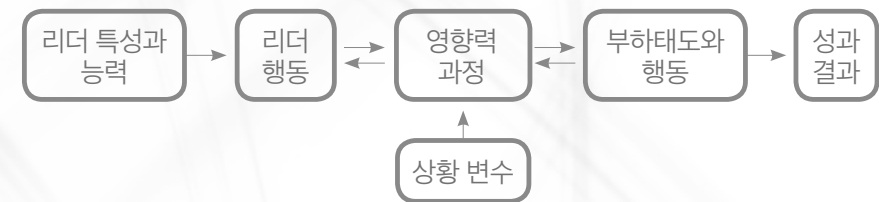
이는 특정 구성원이 왜 다른 구성원들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지, 리더로 선택되는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왜 어떤 리더들은 부하들로부터의 신뢰와 자기 자신감을 상실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이론들 중 하나는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이다.

(4) 조직 과정 (organizational process)

집단 과정 접근법은 개인 내 과정 혹은 일대일 관계 과정 접근법보다 리더십 효과성을 더 잘 이해하게 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집단은 일반적으로 더 큰 규모의 사회체계 내에서 존재하며, 만일 연구를 초점을 집단의 내부 과정에만 국한한다면 집단의 효과성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조직 과정 접근법은 리더십을 집단 보다 더 큰 사회체계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조직의 생존과 번영은 환경에 대한 대응과 필요한 자원 확보에 따라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조직은 성공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공적인 판매를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 위협과 기회요인 파악, 환경에 대한 대응전략 개발, 조직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협상 타결, 외부로부터 협력과 자원 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리더십의 측면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적절한 조직구조 설계, 권한관계 결정, 조직의 분권화 등을 리더가 전략적으로 수행한다면 효율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3. 리더십 연구의 접근방법

리더십에 관한 엄청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리더십 이론과 연구를 분류하는 유용한 한 가지 방법은 가장 중시되는 변수의 유형에 따르는 것이며, 대부분의 리더십 이론들은 일반적으로 리더의 특성, 리더의 행동, 부하의 태도와 행동, 상황 변수, 영향력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이론과 경험 연구는 다음의 다섯 가지 접근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출처: Yukl, G. A., 2006

(1) 특성 접근 (trait approach)

특성 접근은 성격, 동기, 가치, 능력과 같이 리더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강조하며, 여기서의 가정은 특정 사람들은 천부적인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즉,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 통찰력 있는 직관, 초인적인 선견지명, 타고난 설득력 등과 같은 비범한 능력을 타고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930년대와 40년대 동안의 수많은 연구들은 리더십 성공을 보장해 줄 만한 어떤 특성도 찾지 못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특성과 성과 간 인과사슬 내 매개변수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이후, 보다 잘 설계된 연구들로부터 얻어진 결과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쌓여가면서 리더 특성이 어떻게 리더십 행동과 효과성과 관련되는지를 밝히는데 나름대로의 진보가 있었다.

(2) 행동 접근 (behavior approach)

행동 접근은 특성 접근에 대한 연구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리더가 일할 때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에 좀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1950년대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행동 접근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리더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와 전형적인 행동패턴, 책임, 기능을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직접관찰, 일기, 직무기술 설문지, 면접으로 수집한 일화와 같은 기술적 자료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리더십 효과성은 부분적으로 리더가 얼마나 역할 갈등을 잘 해소하고 요구에 대처하며 기회를 인식하고 제약을 극복하는지에 좌우된다. 행동 접근의 다른 하나는 리더들이 그들의 직무에서의 요구와 제약, 역할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리더십 행동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는 행동기술 설문지를 사용한 현장조사연구를 포함하며 리더십 행동과 다양한 리더십 효과성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3) 상황 접근 (situation approach)

상황 접근은 말 그대로 리더십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황적인 요인들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한 변수들로는 부하의 특징, 집단이 수행하는 작업의 성격, 조직의 유형, 외부 환경의 성격 등이 포함된다. 상황 접근은 두 가지 주요 하위범주, 즉 조직의 상황과 리더의 속성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조직의 상황 측면에서의 접근은 다양한 유형의 조직, 다양한 관리 계층,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걸쳐서 리더십 과정이 얼마나 유사한지 혹은 다른지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다음, 리더의 속성 측면에서의 접근은 리더의 특성, 능력, 행동과 같은 속성과 리더십 효과성의 관계를 조절하는 상황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여기서의 가정은 상황이 다르다면 다른 리더의 속성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동일한 속성이 모든 상황에서 최적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4) 권력-영향력 접근 (power-influence approach)

권력-영향력 연구는 리더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영향력 과정을 연구하는 접근법이다. 특성과 행동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어떤 권력-영향력 연구는 단일 방향의 인과관계를 가정하는 리더중심의 관점을 갖는다. 이 연구는 리더가 소유한 권력의 정도와 유형 그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의 관점에서 리더십 효과성을 설명하려고 했으며 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나아가, 다른 연구자들은 리더가 부하들의 태도와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사건 기술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여기서는 서로 다른 영향력 전술에 대해 어떤 전술이 리더가 원하는 것을 부하들에게 하도록 하는데 더 효과적인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였다. 많은 연구들은 참여적 리더십에 대한 부하의 지각과 만족, 노력, 성과와 같은 리더십 효과성 간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5) 통합 접근 (integrative approach)

통합 접근은 한 가지 유형 이상의 리더십 변수를 포함하는 관점이며,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두 가지 유형 이상의 리더십 변수들을 하나의 연구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하지만 여전히 특성, 행동, 영향력 과정, 상황변수, 결과변수 등의 모든 변수들을 통합하는 이론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II. 예수님의 리더십 모델

예수님의 리더십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이 필요하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더십 연구의 분석단위와 접근방법들은 크게 네 가지 차원, 즉 개인, 일대일 관계, 집단 및 사회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위대한 리더 예수님의 리더십을 위의 네 가지 차원에 모두 담아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개인, 관계, 집단, 사회 등 네 가지 차원에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차원 : 자기를 알고 사명을 따르는 셀프 리더십

개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자기를 알고 사명을 따르는 셀프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자기인식, 사명인식, 팔로워십(followership), 셀프 리더십(self-leadership)에 관해서 차례로 설명하려고 한다.

(1) 자기 인식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리더십의 원천은 관계, 지위, 시스템, 사회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본원적인 원천은 리더 자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리더 자신이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리더십을 갖게 하는 출발점이다. 예수님에게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분명한 자기 인식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소리를 들은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막 1:11, 마3:17, 눅3:22)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례 사건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는 나를 기뻐한다'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례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만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자기 인식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나는 ~ 이다'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요6:35, 48, 51).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8:12). “나는 문이다”(요10:9). “나는 선한 목자다”(10:11).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요 11:25).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14:6).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요15:1).

목회자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정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기에 소크라테스는 무엇보다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한 것 같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알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 그것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진을 나타내셨기에 가능했다. 모세나 예수님의 자기 인식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인식은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는 진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오늘날도 어느 사람이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새롭게 인식하며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참 그리스도인이고 목회자이다.

(2) 사명 의식

사명이란 보낸 사람이 맡긴 임무를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누군가로부터 보냄 받은 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말한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셨고, 보내신 이의 뜻, 즉 자기의 임무가 있다고 말씀했다(마10:40, 15:24; 눅4:18-19; 요 3:34, 4:34, 5:24, 6:39, 6:44 외 다수). 예수님은 사명 의식 속에서 사셨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4:18-1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 4:34).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요 17:4)

목회자 또한 사명 의식 속에서 살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임무(예를 들어, 제자 양육의 임무)를 알아서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 중요하다. 목회의 성공 여부는 사명의 완수에 있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사명에 목숨을 걸었고, 바울도 그랬다. 바울의 사명 의식은 목회자들에게 본이 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쳤다.

(3) 팔로워십(followership)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팔로워(Follower)'로서 사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 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빌2:6-8).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잔을 앞에 두고 갓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마26:39). 예수님은 결코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늘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동하셨다.

목회자 역시 팔로워로서 살아야 한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고 그런 사람을 높여 주신다. 그리고 자기를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 즉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목회자의 분복이다. 목회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나의 사명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인가를 분별해야 한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역이 많아질수록, 바빠질수록 기도 시간을 늘리도록 힘써야만이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 또한 목회자는 자기 생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 지도자들, 멘토, 코치의 의견을 경청하고 따라야 독선에 빠지지 않게 된다. 무엇 보다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4) 셀프 리더십

셀프리더십은 과업이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스스로 자신을 리드하기 위해 취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며, 자기주도와 자기 동기부여 하에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셀프 리더십 특징은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자기 인식, 보냄 받은 자로서의 사명

의식,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팔로워십이다. 목회자에게 왜 셀프 리더십이 중요한가는 목회자가 스스로 다음 질문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기 인식이 있는가?
- 나는 사명 의식이 갈수록 굳건해 지고 있는가?
- 나는 팔로워로서 자원(시간, 재능, 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나는 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2. 관계 차원: 사람을 얻는 서번트 리더십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 10:45)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 오셨다. 관계 차원에서 본 예수님의 리더십은 한 마디로 사람을 얻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서번트 리더십에는 4가지 핵심요소가 있다.

(1) 성육신

예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육신 사건이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 오셨다. 이와 같이 사람을 얻는 제1원칙은 자신의 위치를 떠나 자신이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를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관계가 깨진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고 하자. 이때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들을 다시 얻으려면 아버지가 그 권위를 내려 놓고 아들에게로 찾아가야 할 것이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선 죄악이 가득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 오셨다. 목회자가 성육신의 삶을 실천할 때 사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종의 모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종이 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얻으시기 위해 제자의 종이 된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미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 하셨다(막9:33-35). 그리고 예수님은 뭇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시청각 교육으로 제자들에게 확실히 가르

치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약 12시간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식사 자리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되셔서 대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13:14-15). 예수님이 죽음이 임박한 시간에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했던 것은 제자들을 섬기는 것이었다. 그런 예수님을 진실로 안다면 목회자는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마지막 시간에 누구와 함께 하며 누구를 섬기고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 보자.

(3) 희생 제물

예수님의 서번트 리더십은 성육신, 종의 모델에 이어 희생 제물이 되신 데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성경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5:8)고 말한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양처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엡5:2).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당신의 목숨으로 대신 지불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피 값 주고 산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목회자가 사람을 얻는 비밀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의 몸 된 교회, 즉 성도들에게 아낌 없이 내어 주는 희생의 삶이 있다면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를 따를 것이 분명하다.

(4)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서번트 리더십의 마지막 요소는 끝까지 함께 하는 사랑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요13:1). 몇 시간 후에 잡히시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남은 시간을 보내셨다. 만일 나라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를 생각해 본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 할 가롯 유다마저 끝까지 사랑하고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부활의 표징을 보여주셨다. 일상으로 돌아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시고 조반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먹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3. 집단 차원: 제자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임파워링 리더십

집단 차원에서의 예수님의 리더십의 특징은 제자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능력부여(empowerment)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임파워먼트(empowerment)’란 구성원들이 지닌 잠재력을 인정하고 그들이 지닌 재능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리더십을 ‘임파워링 리더십(empowering leadership)’이라고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나라의 일을 맡기시는 동시에 그에 필요한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요14:12).”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질 성령을 기다리라...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4-8).”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막16:17-18).”

목회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할 것 바울은 권하고 있다. 이런 영적 은사를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는 목회자는 영적 은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목회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영적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권능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도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이 재능을 사용해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주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다 묻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 받은 재능을 사용해서 남긴 사람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사람들은 각각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 자기의 강한 재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리더가 사람들의 재능을 강화시키려면 ‘적재적소 배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 적합한 인재를 적합한 장소에 가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각자 자기에 맞는 자리에 가야 능력도 개발되고 조직도 건강해진다. 그렇게 하려면 리더는 사람을 볼 때 성품도 봐야 하지만, 그 사람의 재능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게 맞는 일을 주고, 그 일을 통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기쁨으로 리더를 따를 것이다.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한 것처럼, 진정한 리더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많은 결실을 거두고, 성공하게 만드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따르는 사람들이 이용만 당하는 경우가 많다. 공로는 상사가 독차지 하고, 책임은 부하에게 전가시킨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고, 능력을 개발시켜 주시고, 성공을 맛보게 하신다. 예수님은 내가 따르고자 할 때 성령을 부으시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발견케 하시고, 늘 함께하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 주신다. 때로 실수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도 오래 참아 주시고 또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성취감을 느끼며 지속적으로 성숙의 과정을 밟아 리더로 만드신다. 리더를 세우는 리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의 능력을 키워주시기 위해 현장학습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병고 치는 모습은 물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과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여 주셨다.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 마을로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 학습도 시키셨다. 필자가 교장으로 섬기는 한국리더십학교는 이러한 현장학습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리더십학교의 1년의 정규 과정이 끝나게 되면 마지막 과정으로 미국으로 Field Study를 떠난다.

그리고 예수님은 현장 학습과 함께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그들이 성숙해지는 방법으로 제자를 삼을 것을 명령하셨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들을 성숙하게 하신 것과 같이, 제자들도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아, 그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그들의 성숙을 도와주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직접 가르쳐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의 성숙을 위해 그들에게 능력도 부여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의 성숙을 도모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임파워링 리더십이다. 목회자가 성도들과 함께 교회의 목적을 이뤄갈 때에 힘써야 할 일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에까지 이르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목사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목회자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자라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임파워링 리더십 모델이다.

4. 사회 차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변혁적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의 사회 차원의 리더십 특징은 한 마디로 하나님나라를 구현하는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 1:14-15).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고,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이며, 바울의 핵심 메시지이고, 교

회의 존재 목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실재한다. 그 나라는 볼 수 있고(막 9:1; 눅 9:27), 들어갈 수 있으며(마 7:21; 요 3:5), 상속받을 수 있다(마 25:34).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눅 17:21).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실재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어 나를 통치하시는 것에서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 분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계획하신 일들을 알고 이해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Calling)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날마다 인식하며,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뉠 뿐이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문화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선 하나님 나라가 누룩(효모)과 같다고 하셨다(마 13:33). 요리사는 빵을 반죽할 때 효모를 첨가한다. 효모가 작용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효모는 밀가루 속으로 들어가 반죽을 부풀게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소금으로, 빛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존재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것(Calling)과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Mission)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신(calling)’ 하나님께서 또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애굽으로 보내셨다(Mission). 우리도 이와 같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보냄 받았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모든 그리스도인은 빵 속의 효모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사로서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한다.

셋째, 하나님 나라는 영적 반대 세력에 맞선다(마 13:25). 사탄은 자신의 제한된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로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은 실제 하며,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의 적들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저지하려 한다 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사탄이 전투를 이기는 듯 할지라도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보증해 주셨다.

넷째, 하나님 나라는 위대한 가치를 가졌다. 하나님 나라는 창조된 이 세계의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마 13:44),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마 13:46)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마치 보물 또는 진주를 발견한 자와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새로운 보물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소유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치와 같을 수 없고, 생활 속에 하나님 나라의 법과 통치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것이다.

다섯째,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으며 이를 막을 수 없다. 예수님은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씀하셨다(막 4:26-29). 하나님 나라의 좋은 씨들은 그 주변의 영경귀와 같은 방해꾼들에도 불구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끝없이 확장되고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세상에 아무리 끔찍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선 우리에게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명령하셨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목회의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환상이 아닌 현실이다. 그 나라는 우리가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반대 세력은 실존하지만 그 어떤 힘도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사(歷史)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부르셨고, 또한 부르시고 계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이들의 마음 속에서 시작되어, 그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이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

III. 관계 리더십의 실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더십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에서는 관계 차원에서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어 “리더십은 사람을 얻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에서의 관계적 영향력이라고 정의하려고 한다. 리더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 먼저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채워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대인관계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1. 문화 차이의 이해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생각, 말,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 말, 행동은 그가 속한 그룹의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그가 속한 문화와 내가 속한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클라크훈(Klockhohn)은 인간의 여섯 가지 기본문제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인간행동 및 문화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1)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선한 것인가 또는 악한 것인가? 인간의 본성은 변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절대 불변하는 것인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어떤 관리자가 성선설을 따른다면 사람들을 신뢰하고 참여적 리더십을 선호할 것이지만, 성악설을 따른다면 사람들을 불신하고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지시적 리더십을 선호할 것이다.

(2) 인간과 자연의 관계

사람이 자연을 지배하는가, 또는 자연에 복종해야 하는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리더십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획을 강조하고 변화적 리더십을 선호할 것이다. 반면에 인간을 자연에 복종하는 존재로 본다면 사람들은 외부통제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변화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3) 인간관계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가, 또는 집단주의적인가에 따라 인간관계와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수평적 관계를 선호하며 그

룹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경쟁을 강조하게 된다.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수직적 관계를 선호하고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며 조직 내 상하관계와 협동을 강조한다.

(4) 활동양식

활동양식이 동적인 경우 성과를 중시하고, 설정된 목표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업적을 강조한다. 반면, 정적인 경우는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5) 시간지향성

미래지향적인 문화에서는 과거의 성과보다 미래의 계획이 더 중요하며 변화와 훈련을 강조한다. 반면에 과거지향적인 문화에서는 과거의 전통과 역사적인 교훈을 강조하고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한다.

(6) 공간지향성

사람이 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는가 또는 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적인 공간 사용을 중시한다면 개인적인 공간소유를 중시하고 격리된 장소에서 회의를 하며 은밀한 진행을 선호한다. 반면 공적인 공간 사용을 중시하는 경우 공개회의를 선호하고 사무실의 공간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것을 선호한다.

2. 사람의 필요에 대한 이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7:12)

위의 말씀은 보통 대인관계의 황금률로 불려진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비결은 먼저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려면 그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섬기려는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살펴보자.

(1)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한다

먼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섬김의 출발이다.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면 상대방도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은 관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존중은 관계의 기본이다.

둘째, 상대방과 나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라. 같

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형제들도 많이 다르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투는 근본 이유 중 하나는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행동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상대방의 강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라. 사람은 대개 다른 사람의 강점을 인정하기보다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기까지 한다.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지 결코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강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넷째, 상대방에게 감사하라. 감사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최상의 수단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먼저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 가게 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감사는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2)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며 용서받기 원한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양심에 의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의식의 해결을 위해 용서를 원한다. 특별히 누군가 먼저 다가와 그러한 용서를 베풀어주길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대속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이아기를 통해 우리에게 ‘용서 받은 자로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 18:35)

그렇다면 누가 먼저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갈 것인가?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무척이나 인색한 모습을 보이곤 한다. ‘나는 잘못된 것이 없으니 잘못된 사람이 용서를 구하려고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기억해야 한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있는 인간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셨다.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서번트 리더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좋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이며, 서번트 리더의 자세이다.

(3) 누구나 잠재능력의 성장을 원한다

본래 생명은 성장 본능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을 원한다. 사람은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잠재능력을 키워가는 것에 성공을 느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그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 영적 성장의 목표이다. 그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관계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성장시켜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들을 참된 방향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성장을 격려하고, 도와줌으로써 서번트 리더로서 섬길 수 있다. 그 섬김은 아주 단순하고, 쉬운 일에 대한 성장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인한 참된 성장으로 인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4) 누구나 섬김을 받기 원한다

사람은 여러 가지의 욕구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욕구들이 채워지기를 원한다. Maslow는 5단계로 구성된 ‘욕구 단계설’을 주장했는데, 그에 따르면 각 단계에 대한 충족감이 어느 정도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다음 단계의 욕구를 지향한다고 한다. 따라서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된 후에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안전의 욕구를 지향하게 되고, 이를 어느 정도 충족한 뒤에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가 점점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진정한 섬김이란 사람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사람의 욕구에 따른 섬김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신뢰를 쌓기 위한 감정은행계좌

신뢰 위에 관계가 구축되고 신뢰가 깨어지면 관계 역시 무너지므로 신뢰는 관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역시 믿음을 기초로 회복되고 증진된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신뢰는 장기간의 관계투자를 필요로 한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서로가 상대방의 ‘신뢰계좌’에 예금을 해야 한다. 스티븐 코비는 이를 ‘감정은행계좌’라 이름을 붙이고 이 은행계좌에 예금하는 6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해의 편의상 ‘신뢰계좌’라 부르려고 한다.

(1)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

사람이 신뢰계좌에 예금하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신뢰예금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관점과 가치를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2) 사소한 일에 대한 관심

인간관계에서 커다란 손실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사람들은 매우 상처받기 쉽고 내적으로 민감하다. 약간의 친절과 공손함은 신뢰계좌에 예금하는 행위가 된다. 이와 반대로 작은 불손, 작은 불친절, 하찮은 무례 등은 신뢰계좌에서

인출하는 행위가 된다.

(3) 약속의 이행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예금행위이며, 약속을 어기는 것은 신뢰를 감소시키는 중대한 인출행위이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습관을 갖는 것이 신뢰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다.

(4) 기대의 명확성

상대방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불명확하거나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목표가 불분명한 경우 의사소통과 신뢰를 손상시킨다. 거의 모든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역할과 목표에 대한 갈등이나 불분명한 기대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서로에 대한 역할과 기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 갈등을 예방하므로 신뢰계좌에 예금행위가 된다.

(5) 언행일치

언행일치는 자기의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므로 셀프 리더십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도 언행일치는 상대방에게 말한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켜서 신뢰계좌에 예금행위가 된다. 언행일치의 원칙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할 것이다.

(6) 진지한 사과

실수를 저지르는 것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사람들은 실수를 기꺼이 용서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면 반드시 진지하게 사과해야 한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과는 불성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신뢰를 손상시킨다.

4. 대인관계 리더십의 원칙

스티븐 코비는 인간관계에 대한 6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유형으로 승/승(win/win) 관계를 대인관계 리더십의 원칙으로 주장한다. 인간관계의 6가지 유형을 설명하고, 승/승 관계를 위한 성품 차원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승/승 관계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는 유형으로서 대인관계에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철

학이다. 이 같은 철학은 인생을 제로 썸(zero sum) 게임의 경쟁으로 보지 않고 협력하는 포지티브 썸(positive sum) 게임의 장으로 본다. 또한 나의 방식이나 상대방의 방식이 아닌 제3의 더 나은 방식이 있다는 전제를 가진다. 성품 측면에서도 성숙도가 높아서 용기와 배려 간의 균형을 이룬다. 즉, 다른 사람의 감정과 신념을 배려하면서 자기의 감정과 신념을 용기 있게 표현한다.

(2) 승/패 관계

나는 이기고 상대방은 지는 승패적 사고방식은 리더십스타일에서 권위주의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하기 위해 지위, 권력, 재산 또는 배경 등을 동원하는 경향이 있다. 승패적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비교, 운동시합, 각종 법률적 규제 등이다. 성품 측면에서 보면, 내가 용기는 많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경우 그 결과는 승/패 관계가 될 것이다.

(3) 패/승 관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지고 상대방은 이기는 사고방식에 훈련되어 있다. 그들 마음 속에는 “계속해라 나를 네 마음대로 해봐” 또는 “난 평화주의자야”라는 사고가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대중적인 인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에서 만족감을 얻으려 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신념 등을 용기 있게 표현하지 못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이 갖는 문제는 자기 감정을 묻어 두고 표현하지 않은 채로 있다가 나중에 보다 나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성품 측면에서 보면 상대방의 신념과 욕망에 대한 배려는 높지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해주고 실천할 만한 용기는 낮다.

(4) 패/패 관계

나도 지고 상대방도 지는 사고방식은 적대적인 갈등의 철학에서 나온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에 아무런 방향을 갖지 못하는 매우 의존적인 사람들이 갖는 사고방식이다. 이들은 스스로 비참하게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성품 측면에서 보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낮고, 자신의 신념과 감정을 표현할 만한 용기도 낮다.

(5) 승 사고

단지 이기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반드시 패배해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들에게 남의 일은 관심 밖이다.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6) 승/승 아니면 무거래

이것은 쌍방이 이기거나 또는 쌍방의 이익이 되는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점에 동의하고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기대도 일어나지 않게 되고 어떤 갈등도 생기지 않는다. '승/승 아니면 무거래'는 앞에서 설명한 승/승 관계 보다 더 많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 차원 높은 인간관계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승/승이 아니라도 무거래를 선택할 수 없는 인간관계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가족관계, 특히 모자관계로서 어머니는 자녀에게 늘 지고 손해 보면서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한다.

5.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관계는 인간에 대한 관점, 철학 및 성품 등에 의해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또한 인간관계의 기초는 신뢰이고 그것은 오랜 기간의 관계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나와 상대방의 커뮤니케이션은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은 아래에 설명하는 공감적 경청이다.

(1) 공감적 경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보통 다음의 다섯 가지 수준 중 어느 하나로 듣고 있다. 첫째,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실제로 듣지 않는 것이다. 둘째, 맞장구를 치면서 듣는 체 하는 것이다. 셋째, 선택적 청취로 어떤 특정 부분만 듣는 것이다. 넷째, 신중한 경청으로 상대가 하는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에 충력을 집중하여 듣는 것이다. 다섯째, 가장 고차원의 경청으로 공감적 경청이다.

공감적 경청이란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보통 남에게 먼저 말하고 이해 받고 싶어한다. 또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에도 이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듣기 보다는 대답할 의도를 갖고 듣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말을 하고 있거나 말할 준비만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에서 들을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감적 경청이란 상대방이 가진 준거틀의 내면에 들어가서 그의 관점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도 이해하는 것이다. 공감적 경청의 경우는 상대방의 말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체언어를 눈과 가슴으로 듣는다.

(2) 자서전적 경청

자서전적 경청이란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듣는 것을 의

미하며, 이것은 다음 네 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반응하는 경향을 말한다. 첫째, 판단한다. 이것은 동의하느냐 또는 동의하지 않느냐의 반응을 말한다. 둘째, 탐사한다. 이것은 자신이 가진 준거틀에 입각해서 질문하는 것이다. 셋째, 충고한다. 이는 자신의 경험에 따라 조언하는 것이다. 넷째, 해석한다. 이것은 자신의 동기와 행동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동기와 행동을 유추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반응을 말한다. 이와 같은 네 가지 반응 유형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자서전적 경청은 상대방의 준거틀에 들어가서 그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은 '먼저 경청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 상대방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라'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경청하고 그를 깊이 이해할수록 그만큼 그들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고 더 큰 존경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과 접촉한다는 것은 신비한 경험이다.





일상생활의 신학과 영성

강사 : 방선기 목사

산 제물로 드려라 | 로마서 12:1-2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실된 섬김 | 에베소서 6: 5-9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일상생활의 신학, 신앙, 영성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일상생활의 철학, 일상생활의 사회학 등
성경이 보여주는 일상생활의 관심 vs 전통적인 교회의 일상생활에 대한 무관심

1. 일상생활의 신학-기독교 세계관

교리적인 신학을 넘어서 일상생활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 크리스천이 고스톱을 치는 문제에 대해서
- 섹스(Sex)/인터넷 등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1) 신학의 체계

- 창조의 원리(딤후4:4-5)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선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
- 타락의 원리(롬5:12) 아담의 죄악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죄로 오염시켰다.
- 구속의 원리(고후5:17)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2) 사례: 직업의 신학

- 일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특권이다.
- 일에 고통이 따르게 되었고(창3:19) 일이 우상이 되어버렸다.(전4:8)
- 모든 일은 주께 하듯해야 하며(골3:23)
일이 주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빌3:7-8)

2. 일상생활의 신앙- 종교를 초월하는 신앙

종교 활동을 넘어서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

(1) 신앙의 핵심-하나님과의 관계(Relation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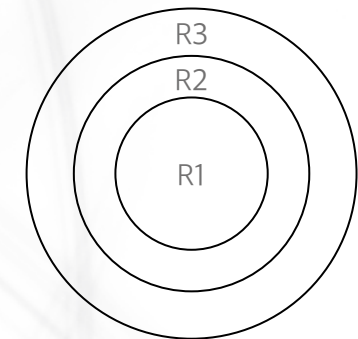
-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 내면적인 신앙과 외적인 표현과의 관계

(2) 종교로 나타난 신앙(Religion)

- 신조로 나타난 신앙
- 예식으로 나타난 신앙
- 체험으로 나타난 신앙
- 지식으로 나타난 신앙
- 활동으로 나타난 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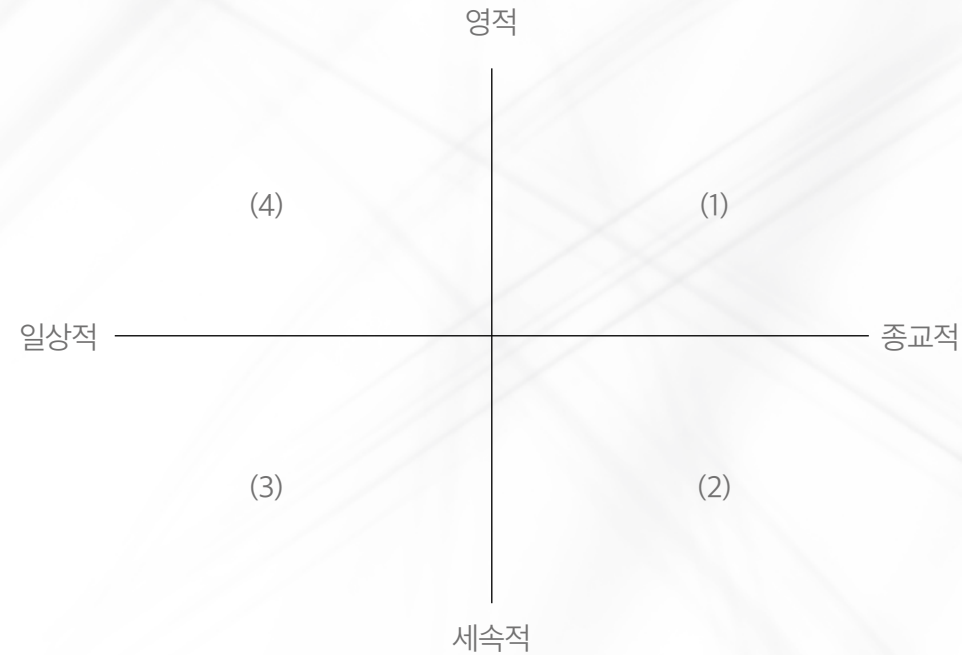
(3) 일상생활의 신앙 (골3:11-4:6)(Real Life)

- 개인적인 생활
- 공동체 생활
- 가정생활
- 직장생활
- 사회생활



3. 일상생활의 영성- 직업의 영성

종교적인 체험이나 종교활동을 넘어서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



(1) 종교적인 영성

- 전통적인 경건생활
- 교회를 통한 종교적인 활동

(2) 종교의 세속화

- 종교예식의 타락(사1:10-17)
- 종교인들의 형식주의(마6:1-7)
- 종교의 물질적인 타락(막11:15-18, 신23:18)

(3) 세속에서의 일상

- 세상의 최악의 보편성(롬5:12)
- 인간생활의 허무성(전1:14)

(4) 일상생활의 영성

- 비종교적인 일상의 일도 거룩해질 수 있다.(딤후4:4-5)
-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일상생활(전9:7-10)

(5) 일상생활의 영성의 사례

- 먹는 일의 영성
- 의복의 영성
- 결혼의 영성
- 노동의 영성
- 자연의 영성(시29편)
- 대화의 영성(삼하16:10-12)
- 만남의 영성(룻2:3)

결론

일상생활은 하나님의 관심사이며 성도들의 신앙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고령사회와 시니어 사역

강사 : 노치형 목사

잠언 3:1-4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4: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1. 2026년을 앞에 두고 : 2018년 고령사회 진입,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2. 외로운 미래에 대한 자발적 고민 : “은빛날개”

※ 은빛날개 - 정의 및 목표

은 : 은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개인이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고(self-reflection) 자신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고 아직 사용되지 못한 영, 몸의 자원들을 개발하여(self-development)

빛 : 빛이 필요한 곳, 국내 사회선교 지역과 해외 선교지역을 찾아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이며,

날 :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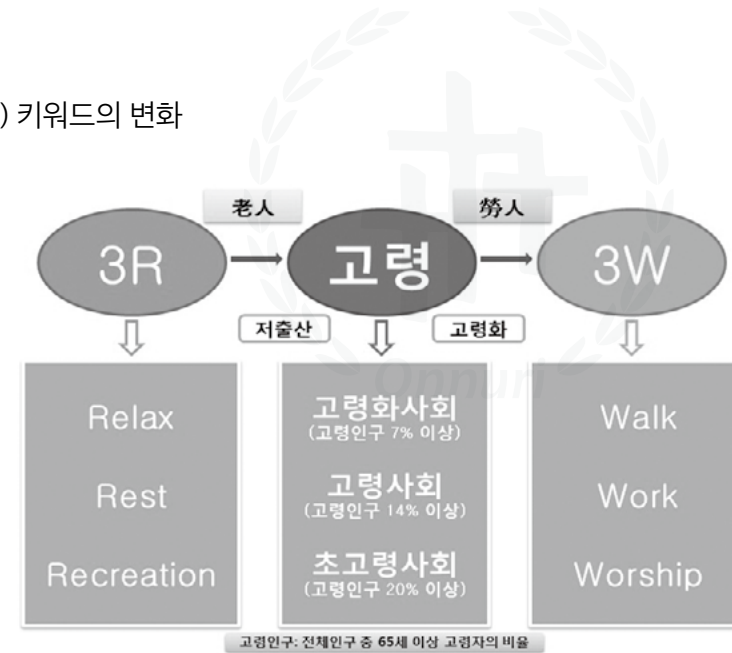
개 : 개인, 나아가 친구관계를 이루는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어(friendship) 확장된 삶의 영역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화평을 이루며, 거짓과 싸워 이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은퇴 이후의 삶

(1) 핵심가치 & 목표

- 자기성찰 Self-Reflection
 자신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되돌아 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 자기개발 Self - Development
 자신의 인생 속에 가장 자신있게 사용할 수 있는 분야들을 발견한다.
- 친구관계 Friendship
 5자신의 인생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자리와 새로운 친구관계를 세워간다.

(2) 키워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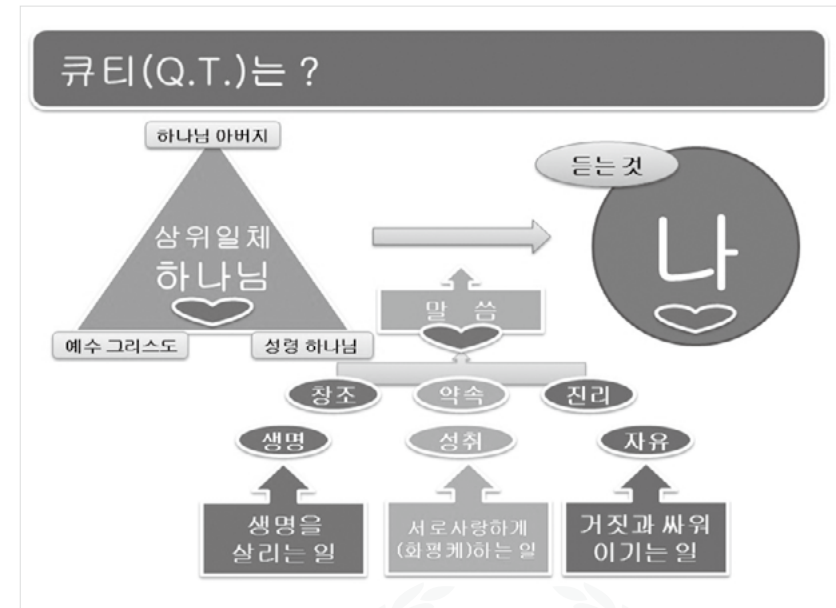


(3) 이제 시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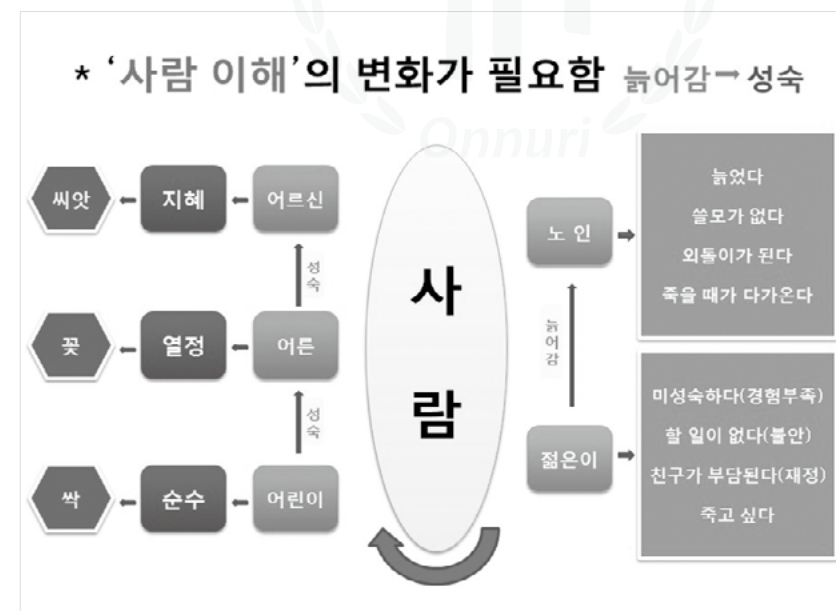
1. 큐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 말씀 안에서 “자아성찰 - 자아개발 - 친구관계”
2. 나를 성찰하는 삶은 소중합니다!
: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인생 속의 ‘만남 & 사건’
3. 나를 개발하는 삶은 꼭 필요합니다!
: 소극적 자아개발이 아닌 적극적인 ‘자아개발’로!
4. 나의 확장인 ‘친구관계’가 중요합니다!
: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열쇠는 ‘친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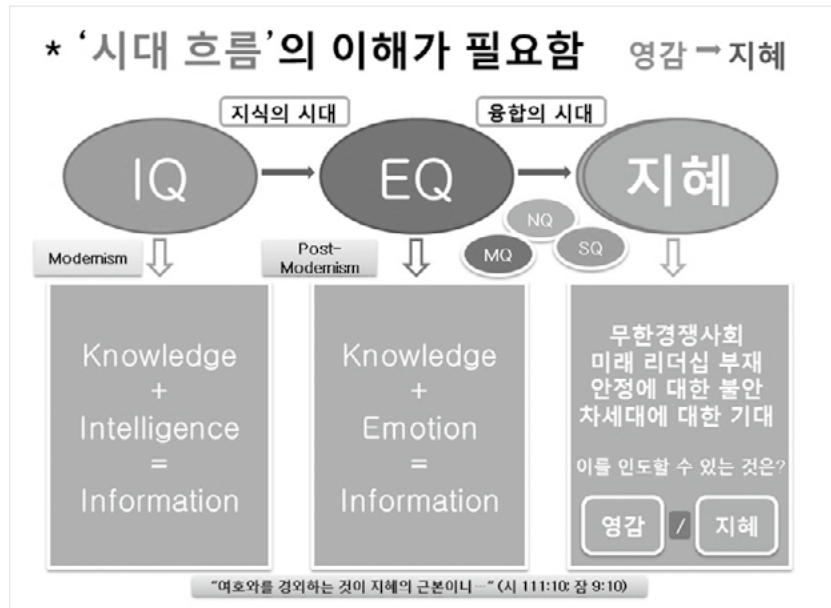
(4) 4가지 명제

1. ‘늡음’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성숙’이라는 단어를 취하라!
2. ‘자신의 과거’가 ‘미래의 밑거름’임을 기억하라!
3. ‘어르신 전문 네트워크’를 통해 ‘후배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라!
4. ‘노년의 여유’를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채워라!



4. 대한민국 초고령 사회의 사람과 시대 흐름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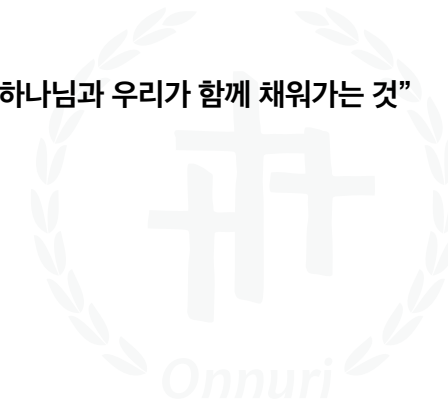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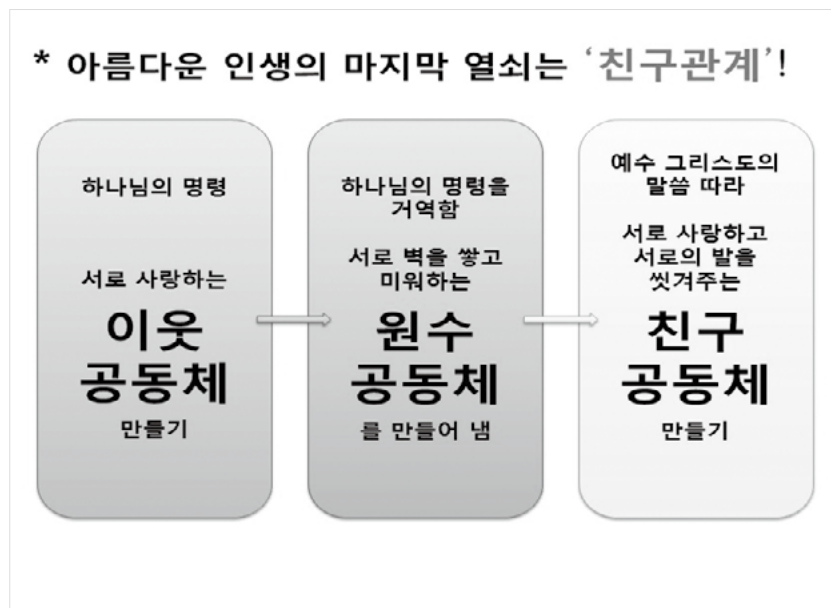
6. 은퇴 이후의 삶 : “은빛날개”



7. 인생의 남은 시간 :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채워가는 것”



5.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열쇠 : “친구관계” (Friendship)



강의에 기쁘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샬롬 & “은빛날개” in Jesus!



관계와 소통 - "말이 통하는 어른"

강사 : 이의용 교수

사랑으로 | 요한 1서 4: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겸손으로 | 빌립보서 2: 3-4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1. 장로의 사명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 12절)

2. 토의-장로에게 필요한 역량은?

- (1)
- (2)
- (3)
- (4)

3. '동굴'에서 '광장'으로

- (1) 동굴에서 혼자 살다 광장으로 나와 불편해지는 것

- (2) 동굴에서 혼자 살다가 광장으로 나와 편리해지는 것

4. '다름'과 '차이'

- (1)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_____ 것이 아니다.
- (2)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_____ 을 읽는 데서 시작된다.
- (3) 다른 사람에게는 나도 _____ 이다.

5. 체력적으로는 열등한 인간이 생물체를 지배하는 힘은?

6. "사람의 행복 90%는 ()에 달려 있다."- 키에르케고르

- (1) 장거리 여행 빨리 가는 법
- (2) 식사 맛있게 하는 방법
- (3) 85%가 () 잘못해서 실패
- (4) 85%가 () 잘 해서 성공
- (5) 85%가 (), ()으로 성공
- (6) "친구는 수천 명도 부족하다. 그러나 ()은 한 명도 많다."-알 카포네

7. 평소 나와 가장 자주 소통하는 사람 10명은?

8. 내가 앞으로 소통을 더 자주 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 5명은?

※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들과 _____ 관계를 맺느냐는 것은 내 선택이다.

※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_____, _____, _____를 읽는 데서 시작된다.

9. 소통과 갈등

(1) 갈등(葛藤): '침덩굴과 등나무 덩굴이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견해·주장·이해관계 따위가 서로 달라 적대시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

(2) 가정이든 교회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상 갈등은 불가피하다.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그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다.

'通卽不痛(통즉불통), 不通卽痛(불통즉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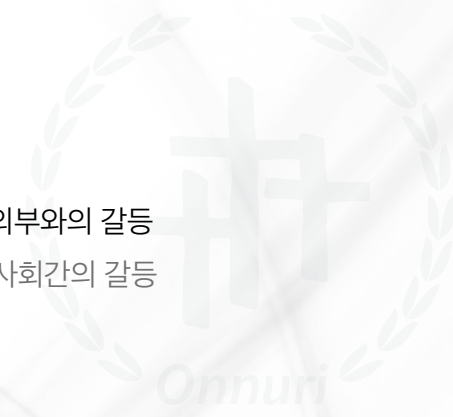
10. 교회와 갈등

(1) 교회 공동체 내부의 갈등

- ① 목사 vs 장로
- ② 장로 vs 장로
- ③ 당회 vs 교인
- ④ 교인 vs 교인
- ⑤ 세대 vs 세대
- ⑥ 담임목사 vs 부교역자
- ⑦ 교회 vs 간사(교회 직원)
- ⑧

(2) 교회와 공동체 외부와의 갈등

- ① 교회와 지역사회간의 갈등
- ② 교회와 사회의 갈등
- ③ 교회를 향한 사회의 불신



11. 갈등 해결, 소통의 방법

(1) 직면(直面) 소통

- ① 상대방을 직접 대한다. 제3자를 통한 간접 소통, 추측을 지양한다.
- ② 상대방이 알고 있는 사실(fact)과 원하는 것(needs)을 정확히 파악한다.
- ③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해결해나간다.

Communication Sheet		
From	To	말이 통하는 교회를 위해 이렇게 해주세요
담임목사	장로들	
장로들	담임목사	
	다른 장로들	

(2) 소통의 연습-말하기와 경청하기

- ① 친절하게 말하기
 - “반갑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했습니다”
- ② 말하는 순간 듣지 못한다.
 - 輕聽 < 傾聽 < 敬聽
- ③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_____
 - 공감(Repeat)
 - 주장(“제 생각에는....”)
 - 인정(“일리가 있습니다”)
 - 거절(“Yes, But...”)
 - 충고, 부탁(Sandwich)
 - 요구(Fact-I-Want)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잠언 15:23)

(3) 교회내 소통을 위한 방법

- ① 신속한 정보 공유
- ② 교회내 미디어 운영
- ③ 교회내 토론 문화 활성화
- ④ 회의법 혁신(수렴형, 확산형 구분)
- ⑤ 사서함 운영
- ⑥ 권한 위임
- ⑦ 청년 당회 운영
- ⑧ 나의 5분간(교회에 바란다)
- ⑨ 투명한 재정 사용(외부 감사)
- ⑩

(4) 평화로운 당회 운영법

- ① 내가 아닌 하나님과 교인의 입장에서 결정한다.
- ② 발언을 독점하지 않는다.
- ③ 1시간 내에 끝낸다. (끝나는 시각 알람)
- ④ 토론은 활발하게, 그러나 일단 결정되면 견해가 달라도 적극 협력한다.
- ⑤ 토론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 ⑥ 결정 사항은 24시간내에 전 교회에 공개한다.
- ⑦

(5)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 ① 설문조사
- ② 마을 신문 발간, 지역 인터넷 방송 운영
- ③ “주민에게 듣는다”, “교회에 바란다”
- ④

“My life is my message.”- 간디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에는 한 시간이면 족하다. 그러나 기독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데에는 평생이 걸린다.”-버클레이

[참고자료]

소통의 법칙

1.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은 가장 나쁘다. 궁시렁거리지 마라.
2.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편이 많아진다.
3.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흥분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4. '귀'를 흠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하라.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는 말을 하라.
5.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하기 쉬운 말보다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라.
6.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허물은 덮고 칭찬은 자주 해라.
7. '뻘'한 이야기 보다 '편'한 이야기를 해라. 디즈니만큼 재미있게 해라.
8. '허'로만 말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해라. 비언어적 요소가 언어적 요소보다 힘이 있다.
9.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 된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10.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 뱉어진 '말'이 나를 다스린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번 말한 것은 책임을 져라.

'아재'(꼰대) 체크리스트

1. 사람을 만나면 먼저 나이부터 확인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서는 반말을 한다. □
2. 대체로 명령문으로 말한다. □
3. '요즘 젊은이들이 노력하기보다 세상 타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
4. "○○란 ○○인 거야"라는 식의 진리명제를 자주 구사한다. □
5. 버스, 지하철의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젊은이에게 "비키라"고 말하고픈 충동이 있다. □
6. 후배의 장점, 성과를 보면 자동반사적으로 그의 단점, 약점을 찾게 된다. □
7. "내가 너만 했을 때" 라는 얘기를 자주 한다. □
8.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
9.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간부, 유명 연예인 등과의 개인적 인연을 자주 얘기하게 된다. □
10. 커피, 담배를 알아서 대령하지 않거나 회식 때 삼겹살을 굽지 않아 기어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후배가 불쾌하다. □
11. 낯선 방식으로 일하는 후배에게 친히 '제대로 일하는 법'을 알려준다. □
12.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해라 해놓고 나중에 보면 내가 먼저 답을 제시한다. □
13. 옷차림이나 인사예절도 근무와 연관된 것이므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4. 내가 한때 잘나가던 사람이었음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
15. 연애사와 자녀계획 같은 사생활 영역도 인생선배로서 답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 □
16. 회식, 야유회에 개인 약속을 이유로 빠지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다. □
17.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는 두고두고 잊지 못한다. □

18. '미주알고주알' 스타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확인한다. □
19. 아무리 둘러봐도 나보다 더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
20.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만 실제로 뭘 배운 적은 없다. □

- 창의리더십센터 -

60, 70대를 위한 7Up

1. CLEAN UP : 나이가 들수록 집과 환경을 모두 깨끗이 하고 주변을 정리정돈하며 자신에게 필요없는 물건을 과감히 버려라.
2. DRESS UP :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해서 구질구질 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라. 젊은 시절에 아무 옷이나 입어도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 비싼 옷을 입어도 좀처럼 옷태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3. SHUT UP :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하라. 노인들의 잔소리와 훈수는 모임의 분위기를 망치고 사람들을 지치게 한다. 말 대신 박수를 많이 쳐주는 것이 환영받는 비결이다.
4. SHOW UP : 회의나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해라. 집에만 칩거하며 대외활동을 기피하면 정신과 육체가 모두 병든다.
5. CHEER UP : 언제나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라. 지혜롭고 활달한 노인은 주변을 활기차게 만든다. 지혜로운 발에다 독창적인 유머 한 가지를 곁들이면 더 바랄 것이 없다.
6. PAY UP : 돈이든 일이든 자기 몫을 다하라. 지갑은 열수록 입은 닫을수록 대접 받는다. 우선 자신이 즐겁고 가족과 손아래 사람들로 부터는 존경과 환영을 받게 된다.
7. GIVE UP :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라. 이제껏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세상만사와 부부, 자식문제가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변할 수는 없다. 되지도 않을 일로 속을 끓이느니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심신이 편하다.
8. STAND UP : 눈치 없이 오래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라.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바로 알아야 한다.

4가지 나이

- (1) 역연령(歷年齡): 시간의 흐름이 기준.
- (2) 생리적 연령: 몸의 상처가 치유되는 속도가 기준.
- (3) 심리적 연령: 두뇌의 기능, 감정의 차이, 감수성 등이 기준.
- (4) 사회적 연령: 일을 처리하는 능력과 판단력 등이 기준.

*"신념이 있으면 젊어지고, 의심이 있으면 늙어진다.
자신을 가지면 젊어지고, 절망을 품으면 늙어진다."-더글라스 맥아더*

나이란 마음먹기의 차이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 김 준 업 -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다음세대의 이해와 교회의 책임

강사 : 최섯별 교수

후손이 알게 하라 | 신명기 4:1, 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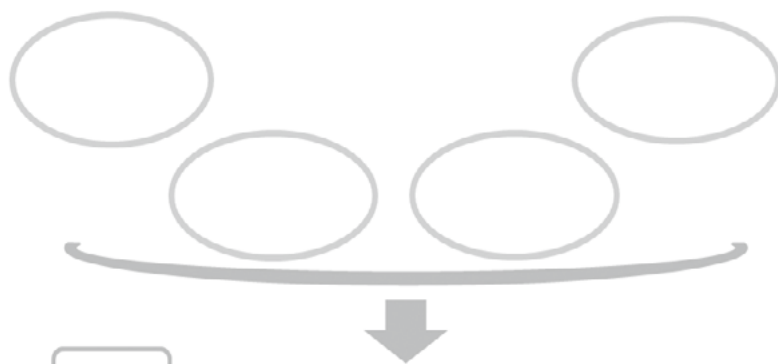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 에베소서 6:4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코세대’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

1. 세대란 무엇인가?



❖ 생애 주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특정 시대적 상황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이를 통해 유사한 가치관과 의식 및 태도를 지닌 집단 (박재홍, 2005)

2. 에코세대는 누구인가?

(1) 에코세대의 사전적 정의와 기원

① 에코세대란?

② 인구학적 측면

③ 사회문화적 측면

(2) 에코세대를 명명하는 다양한 명칭들

나이/생애단계	문화적/행태적 특성	시대상황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 세대 ❖ ___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세대 ❖ 디지털세대 ❖ ___세대 ❖ ___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8만원 세대 ❖ 3포/5포/7포/___세대 ❖ 절망세대 ❖ 달관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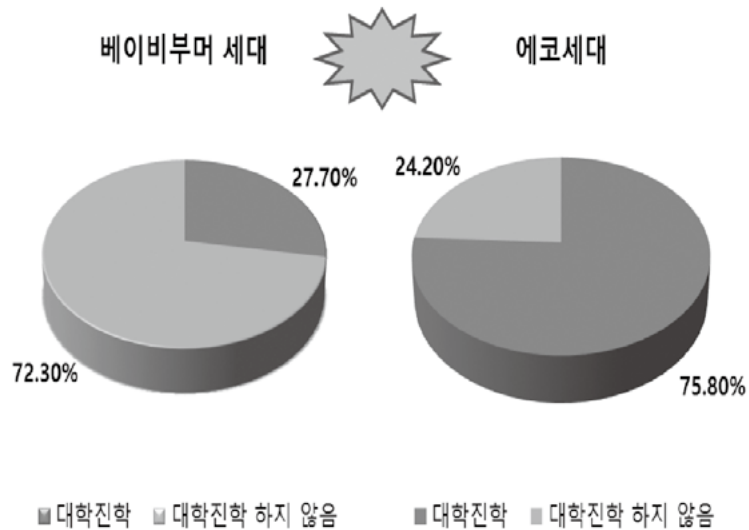
- P세대: 적극적 참여(Participation), 열정(Passion), 힘(Potential power)을 바탕으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킨 세대(Paradigm-Shifter)
- IP세대: 재미와 열정(Interest & Passion), 국제적 잠재력(International Potential), 혁신의 개척자(Innovative Pathfinder), 똑똑한 재테크족(Intelligent Portfolio)
- 3포/5포/7포: 연애, 결혼, 출산/인간관계, 주택구입/꿈, 희망

3. 에코세대의 삶의 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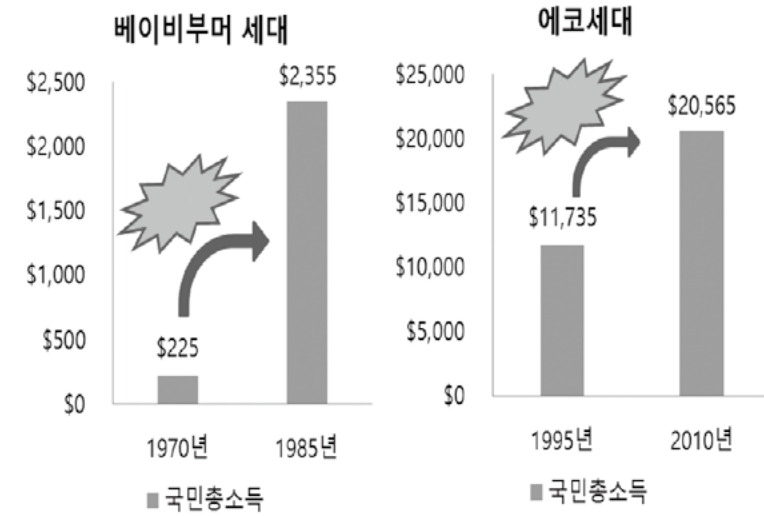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적 _____ 정치적 탈권위 및 긴장 완화의 상황에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풍족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 심화
사회적 측면	문화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층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성장 _____에 대한 인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_____활성 (개인용 PC, 케이블 TV, E-mail 등의 보급)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를 배우고 해외경험 및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1) 에코세대가 경험한 주요 사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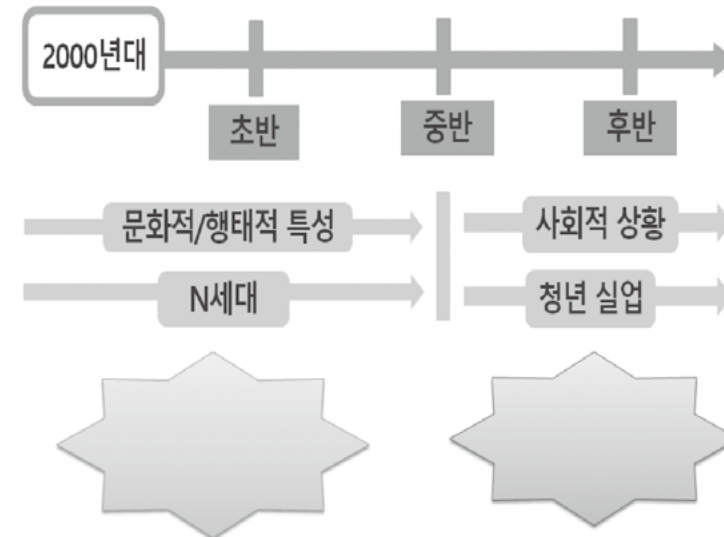
- ① 수치로 보는 에코세대의 오늘
- 대학 진학률



② 성장기 1인당 국민총소득



4. 에코세대를 둘러싼 시선의 변화



5. 에코세대의 특징

(1) 자기계발에 매진하는 _____ 네이티브와 태생적 _____

❖ 뛰어난 능력과 풍부한 문화자본을 갖춘 세대

- 높은 교육열 및 대학 진학률을 통한 학력자본
-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험 (개인용 PC, 조기 외국어 학습, 해외여행)을 바탕으로 한 컴퓨터 및 영어실력

❖ 자기계발에 매진하는 세대

- 끊임 없는 배움, 스펙과 역량을 위한 노력
- 고학점을 위한 재수강, 제2외국어 학습, 몸매/외모 관리

(2) “인생의 목표는 _____ 사는 것”

❖ 재미와 즐거움'을 삶의 우선적인 가치로 생각

- 에코세대의 75%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

❖ 여가와 문화생활 중시

- 주어진 연차나 휴가를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YES)
- 휴일에 일이 있다면 꼭 출근해야 한다. (NO)

❖ 재미를 추구하고 여가를 향유하는데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

- 에코세대의 경우 자신이 특별하게 선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에 상관없이 최고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감성, 문화, 유행 등에 민감하여 가치소비와 증동소비를 많이 하는 편 (임미리, 2013)

(3)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가 확실한 _____

❖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에 행동을 취함

❖ '내 것' 중시 경향

- 외환위기 경험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
- 에코세대의 고민은 연애나 결혼이 아닌 '취업과 돈'

❖ 최근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실용주의가 극단적으로 나올 수 있음

- 봉사도 스펙: 무조건적인 희생과 봉사 NO

(4) “내가 제일 중요해” _____ 를 거부하는 평등주의자들

❖ 자유로움이나 평등과 같은 가치를 중시

❖ 즉흥적인 인간관계

- 온라인 중심
- '의리나 정' 보다는 '재미와 실용성' 추구

❖ 탈권위주의에 대한 지향

- 부하직원이 상사보다 늦게 퇴근해야 한다. (NO)
- 가장의 권위는 무조건 존중 받아야 한다. (NO)



과학기술과 사회의 변화

강사 : 이재규 교수

지혜의 소중함 | 잠언 4:7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식의 중요함 | 잠언 19:2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목차

● 과학기술과 4차산업혁명

● 인공지능의 돌풍

- Game, 음성인식과 자동번역, 영상인식과 VR
- Robot, 무인자동차와 Drone, Brain Project

● 인공지능 + 인터넷과 사회의 변화

- 산업의 변화, 고용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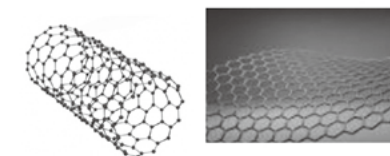
● 인공지능 + 인터넷과 교회의 대응 방안

- 창조신앙의 보존
- 교회 운영을 위한 도구

2

주요 과학기술과 영향

- IT (정보 통신 기술): 인터넷, 스마트폰, AI
 - 효율증대 → 고용 절벽
- BT (바이오 기술) : 유전공학, Genome Project
 - 장수 → 고령화
- ET (에너지 기술) : 탄산가스 배출 저감
 - 기후변화 방지 → 탄산가스 배출 규제
- NT(나노 기술): 요소 기술 (Nano Tube; Graphene)
 - 효율성 증대: 10^{-9} meter



3

4차 산업혁명

- 1차 산업혁명 (1784): 증기기관과 기계
 - 파괴적 혁신 (Disruptive Innovation)
 - 기계파괴 운동
- 2차 산업혁명 (1870): 전기, 대량생산, 분업화
- 3차 산업혁명: IT, 자동생산
-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IoT), 무인자동차, 드론 (Drone), 3D Printing
 - 높은 생산성과 노동 대체
 - WEF: 주요 15개국
 -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710만개의 기존 일자리 감소
 - 한국의 적응 순위: 25위

4

4차 산업 분류와의 차이

- 1차산업
 - 농업, 축산업, 어업, 임업, 수산업 등
- 2차산업
 - 제조업, 광업, 건설, 전력, 에너지 산업 등
- 3차산업
 - 서비스업, 금융, 보험, 유통 등
- 4차산업
 - 지식산업, 정보 배포 및 공유, 정보기술, R&D

5

목차

- 과학기술과 4차산업혁명
- 인공지능의 돌풍
 - Game, 음성인식과 자동번역, 영상인식과 VR
 - Robot, 무인자동차와 Drone, Brain Project
- 인공지능 + 인터넷과 사회의 변화
 - 산업의 변화, 고용의 변화
- 인공지능 + 인터넷과 교회의 대응 방안
 - 창조신앙의 보존
 - 교회 운영을 위한 도구

6

인공지능 (AI) 돌풍 1: 게임

- Google: 바둑
 - DeepMind AlphaGo, AlphaZero
 - Deep Learning과 신경회로망
- IBM Watson: 퀴즈왕
 - Jeopard Quiz Champion in 1997
- ETRI Exobrain (2016)
 - 장학퀴즈
 - Exobrain: 510점; 2위 사람: 350점
- 투자자문
 - Fund Manager (-2.39%) 와 RoboAdvisor (약 2% 후반)의 투자효과 경기 (2016년 1-3월)
 - Goldman Sox: Trader (600 → 2명); 개발자 200명
 - 1/4은 개발자 (9,000명); 50만 달러 → 70만 달러



7

인공지능 대표 Google AlphaGo와 인류의 대표 이세돌의 세기의 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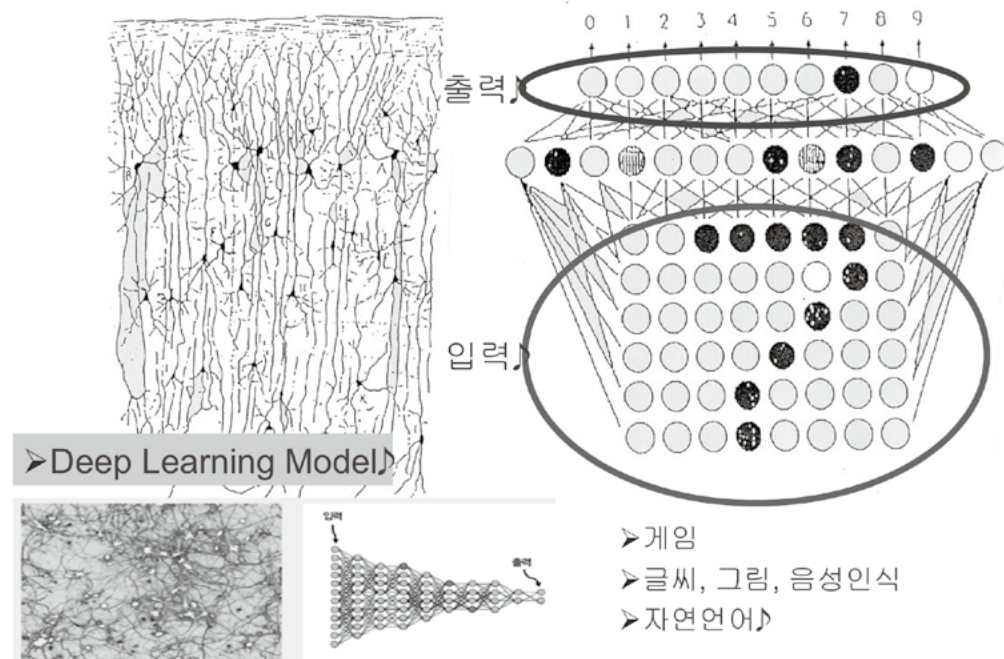


창조주께서 주신 인간의 자연 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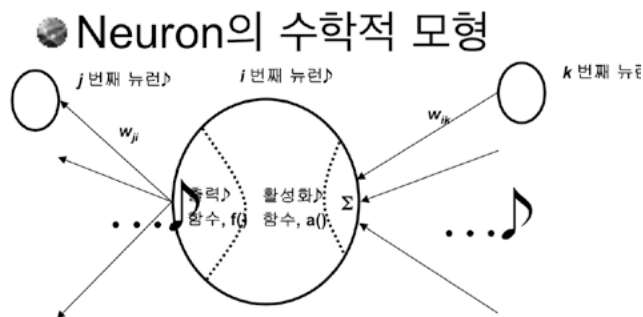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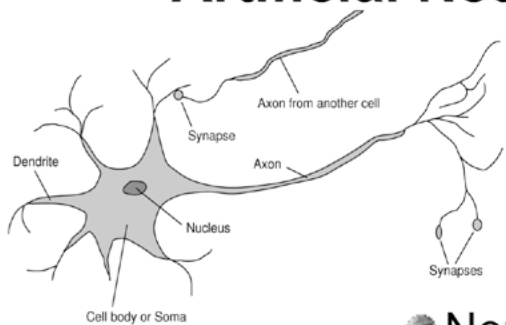
● 1000억개의 Neuron 과 100조개의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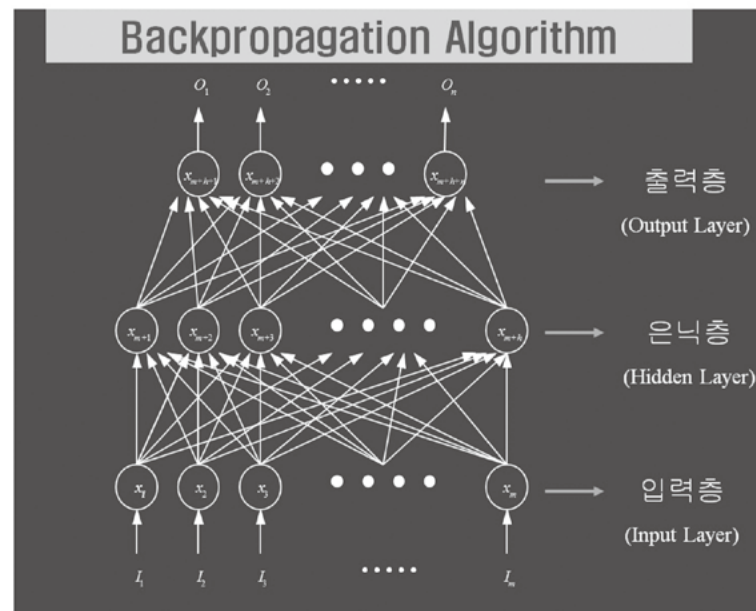
인공신경 회로망의 인식모형



인공신경 회로망의 모형화 Artificial Neural Network



신경회로망 학습:가중치의 계산



응답하라 1986



- 1986: AI**
- No Internet
 - No Smart Phone
 - No Cloud Computing
 - No Deep Neural Net
 - 특정목적의 AI

- 2016: Internet + AI**
- Internet
 - Smart Phone
 - Cloud Computing
 - Big Data
 - Deep Neural Network
 - 범용적 AI 인식기능

"정보화 다음은 AI..2016년 지능정보화 원년 될 것"
[머투초대석]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 "지능정보화시대 첫 걸음은 SW 개발"

13

인공지능 2: 음성인식과 자동 번역

- Google
 - 자동번역 기능의 획기적 개선: 영어 → 100개 언어 (200명 개발자)
 - 자동 번역의 예
 - 인간 번역사 49/60; Google: 28/60
- Naver Papago
 - 네이버 번역기: 텍스트와 음성
- 스마트 폰의 인식
 - 삼성전자: 빅스비 (Bixby)
 - 애플: Siri
 - 구글: Assistant
- Amazon.com
 - Elisa: 음성인식 오디오
 - Speaker Platform 사업 경쟁
- SKT
 - Nugu



15

인공지능의 사업모델

- AlphaGo
 - 1202 CPUs in Cloud Computing; 176 Graphic Process Units
 - 3천만개 사례의 Supervised Learning
 - Deep Learning Models
 - Input Node: 19 *19*48 ; Layers: 13개층



- Business Model
 - Google DeepMind 인수: 4-5억달러 (2014년 1월 27일)
 - 이세돌과 경기후 주가 상승: 58조원 (5.18% 상승)
 - 수익 모델: 바둑 게임 교육기계로 발전?
 - 기술적 잠재력을 이용한 응용 시스템의 개발로 발전

14

자동 번역의 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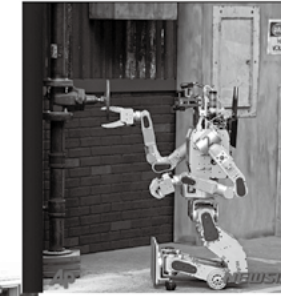
16

인공지능 3: 영상인식과 VR

- **Stanford University: Deep Learning Project**
 - By Stanford University Andrew Ng and Google (2012)
 - 16,000 processors, 10억개 이상의 Neural Network
 - YouTube의 천만개 이상의 비디오중 고양이 인식
- **IBM**
 - 의료 영상 판독: 정확도 96% (2016)
 - 원격의료 진단
- **아산병원: 인공지능 의료 영상 사업단**
 - 폐, 간, 심장질환 영상 판독 지원
- **교통 상황 등의 인식기능 연구필요**
 - 무인 자동차, 교통신호등
- **Facebook: Tagging Services (얼굴 인식), Augmented Reality, VR**
 - Social VR Demo – Oculus Connect 2016
 - <https://www.youtube.com/watch?v=YulgyKLPT3s>

17

- **재난 구조:**
 - Hubo: 세계 1위



- **공격 무기: 러시아**



- **반려자**



19

인공지능 4: 로봇

- **제조: 용접, 조립**



- **물류센터 (Amazon.com의 KIVA System)**



92

인공지능 5: 무인 자동차와 드론

- **Google**
 - 무인 자동차 (Self-Driving Car)
 - 10년 이내 상용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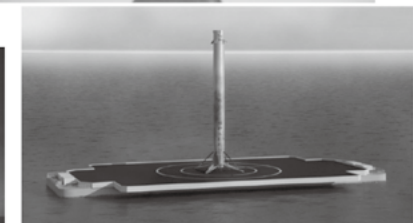
- **KAIST EureCar**
 - 세계 2위
 - 도로 주행 실험 (2017년)

➔ 안전증대, 사람을 대체

- **Amazon.com**
 - 물류센터와 배달의 자동화



- **재활용 로켓**
 - Amazon
 - Space-X



93

인공지능 6: Brain Project

- Brain Initiative (미국)
 - 10년간 30억 달러
- DARPA SyNAPSE
 - 2009년: Compass (원숭이 뇌의 모방)
 - 2014년: 인간의 뇌 구조 TrueNorth 발표
 - 100만개의 뉴런, 2억5천만개의 시냅스
- 뇌속의 Chip
 - 자연 두뇌와 인공 두뇌의 통합
- 삼성전자 (한국)
 - 서울대, KAIST등과 뇌신경 닮은 칩 공동개발

21

선진국의 Brain Projects

- EU: Human Brain Project
 - 신경정보학, 의학(진단, 치료법 발견), 컴퓨팅
 - 10억 Euro (2013년; 10년간)
- 일본: 로봇신전략 (2015), AI 미래상 연구회
- 중국: China Brain (2015.3)
 - 산업용 로봇, 국방의 참여 촉구 (바이두 회장 양회에서)
 - 언어, 그림, 영상, 무인 운전, 인공지능 중심
- 한국: AI 정부 R&D 380억원 (2017년도)
 - ETRI Exobrain (2013년, 10년)
 - 연간 80억원 * 10년
 - 강한 AI: 인간 모사형
 - 약한 AI: 자율학습, 문제해결

22

목차

- 과학기술과 4차산업혁명
- 인공지능의 돌풍
 - Game, 음성인식과 자동번역, 영상인식과 VR
 - Robot, 무인자동차와 Drone, Brain Project
- 인공지능 + 인터넷과 사회의 변화
 - 산업의 변화, 고용의 변화
- 인공지능 + 인터넷과 교회의 대응 방안
 - 창조신앙의 보존
 - 교회 운영을 위한 도구

23

사람을 대체한 기계들: AI 만의 문제 아니다

- 서비스시간 연장, 접근성, 비용절감, 생산성
- 금융



➢ 유통

➢ 교통



Amazon.com의 혁신의 예

- Amazon.com: Online Bookstore
 - 소형 서점이 없어짐
- eBook과 audio book 이 인쇄본을 능가함
 - Kindle의 생산 판매
- 온라인 백화점
 - Walmart를 능가함
- 무인 물류센터
- O2O (Online to Offline) 매장 설치
 -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무인 오프라인 매장 설치
- 자율주행 자동차와 Drone을 이용한 무인배달 연구
- Reusable 로켓: Space X와 경쟁
 - 공공 부문의 파괴적 혁신과 민영화

25

인공지능에 의한 고용변화

증가

- 데이터 분석
- AI 신산업
- 지능형 서비스
- 효율 증대
- 창의성
- 디자인

고용 전략

- 증가 > 감소
- ➔ 수출 산업화
- 증가 < 감소
- ➔ 재교육 재배치

감소

- 단순작업
- 단답형 문제
- 반복적 문제
- 지식 수정이 낮은 문제

27

산업구조와 고용 변화의 예

- 무인 자동차
 - Navigator와 Uber와 결합
 - 마지막 2%의 완성을 위한 비용
 - [변화] 택시, 대리운전의 대체효과
 - ➔ 렌트 확대와 공유경제 ➔ 주차 문화의 변화
 - ➔ 자동차 산업의 수요감소 ➔ 환경 보호
- 나이키 신발
 - 3D Printing와 원격 맞춤형 주문
 - Robot의 맞춤 제작: 저렴한 노동력의 필요성 저하
 - 개인적 신발규격을 등록 하는 창구는 필요
 - [변화] 고객의 만족 증대, 고용의 변화,
 - ➔ 시장 근접한 공장의 위치 ➔ 제조업의 재배치

26

AI의 잠재력과 한계점

- 문제 유형의 한계
 - 불확실성이 내재된 문제(Generic uncertainty)
 - 비반복적 예측 지식의 한계점
 - IMF, 미국금융위기, 석유가격 하락, 한국의 핵전쟁과 통일 등에 대한 예측
 - 비정형 문제(Unstructured problems): 문제의 정의
 - 주관식 해답(Creative synthesis): 단순 기사작성과 창작적 해답
 - 다목적 의사결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 가치관에 근거한 문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
 - 지혜를 요하는 판단
- 경제성: 지식 습득과 유지의 비용 대비 효과
- AI의 악용으로 인한 위험의 증대와 안전 보장
- AI의 남용에 대한 법적 윤리적 한계
- ➔ 사이버 범죄: 밝은 인터넷의 환경 조성 필요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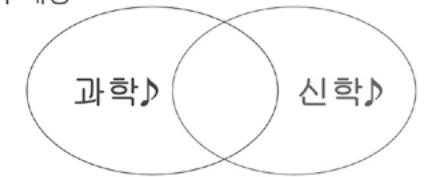
목차

- 과학기술과 4차산업혁명
- 인공지능의 돌풍
 - Game, 음성인식과 자동번역, 영상인식과 VR
 - Robot, 무인자동차와 Drone, Brain Project
- 인공지능 + 인터넷과 사회의 변화
 - 산업의 변화, 고용의 변화
- 인공지능 + 인터넷과 교회의 대응 방안
 - 창조신앙의 보존
 - 교회 운영을 위한 도구

29

역사의 교훈: 과학과 신학의 영역

- 1543년 코페르니쿠스
 -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지동설)
 - 1616년: 로마 카톨릭교회의 금서
- 1610년 갈릴레이
 - 천체 망원경 발명
 - 1633년 종교재판, “그래도 지구는 돈다”
 - 1687년 뉴턴: 만유인력과 조수간만의 차 해명
- 1859년 다윈의 종의 기원
 - 진화론
 - 유전자와 생명공학
-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과학적 기반 위에 설명할 것인가?
 - 창조과학의 현주소와 성경의 해석



31

신학적 도전

비약

소름끼치는 직관과 추론, 우리 알파고의 영혼을 보았다

-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34577.html
 -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사람들이 목격한 건 혹시 ‘알파고의 영혼’이었을까?
 - 영혼도 계산의 결과물로 얻을 수 있는 거라는 끔찍한 현실을 목도한 건 아닐까?

- 유발 할라리, 사피엔스, 500만부; 호모 데우스
- 인공위성과 천체물리학: 태초의 우주
- 신앙관: 창조신앙과 창조과학의 재정립 필요
 -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창조신앙을 잃게 할 것인가?
 - 자연 지능의 오묘함과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30

기술 발전이 교회에게 주는 교훈

- 초대교회와 공통적으로 간직해야 할 점
 -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
 -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신앙
- 인터넷 시대의 온누리교회: AMA (O2O 교회)
 - 40개의 교회의 동질성 유지
 - 인터넷을 이용한 교회간의 글로벌 의사 소통으로 동질감 증진
 - 디지털 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공유; 그리고 한국교회와 나눔
 - 차세대를 위한 수직 선교
 - 젊은이들을 찾아가는 온라인 선교와 교회로 모임의 조화
 - 온라인 콘텐츠를 한국 교회에 나누어 주는 인프라 교회
 - 온라인 세계 선교와 현지선교
 - 지역 교회의 개념을 뛰어 넘는 선교 공동체의 규모가 필요함
 - 현지 선교사역과 CGN/인터넷 선교의 보완적 융합선교
 - 인프라를 제공하는 대형교회가 필요한 시대
 - 지역교회의 한계를 넘어선 온누리교회의 소명이자 기회이다
 - 시대의 변화를 대비해 나가는 끝없는 젊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32



종교개혁과 한국교회사

강사 : 임희국 교수

하나님의 영 분별 | 요한 1서 4:1-3

사랑하는 자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거짓 그리스도를 경계 | 마태복음 24:23-24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I. 독일 루터 종교개혁과 성경번역

16세기 독일 루터 종교개혁의 출발과 핵심은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1517년에 그는 성령의 역사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깨우쳤다. 그의 눈과 귀가 성경의 문자를 꿰뚫고 지나가서 로마서를 쓴 바울에게로 바짝 다가갔는데, 바울에게 역사했던 성령이 1500년 시공(時空)을 뛰어 넘어 루터에게도 역사했다. 이로써 과거와 현재의 “동시성(Gleichzeitigkeit)”이 성립되었다. 이것이 성경 안에서 울려 나오는 성령의 내적 증언이다. 이때부터 루터에게는 성경이 -문자로 읽히지 않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루터는 1521년 5월 4일부터 1522년 3월 1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작센(Sachsen)지역 선제후(Kurfürst)의 영토에 있는 성(城)인 바르트부르크(Wartburg)에 숨어 지내면서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당시의 그는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Vulgata)와 에라스무스의 희랍어 신약성경을 갖고 있었다. 마치 광야 같은 외딴 성에서 지내며 번민하는 가운데 번역이 진행되었다. 불과 11주간의 짧은 기간에 완성된 번역작업인데, 이것이 독일 최초의 성경번역은 아니었으나 작센 지역의 표준어로 번역하면서 지역의 독일어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루터가 번역한 성경언어가 독일 공용어로 정착되었다. 그는 성경의 원전에 충실하면서도 독창적으로 번역했는데, 성경 낱말의 단어를 정확하게 옮기는 문자적인 번역에 집착하지 않았고, 성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가운데서 독창적 창의성을 발휘하여 번역했다. 그는 라틴어 한 글자 한 글자를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았고, 일반 가정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 하듯, 골목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활기찬 놀이언어이듯,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의 생동감 넘치는 언어로 번역했다. 루터의 성경 전체번역은 1534년까지 진행되었다.

II. 한국의 토착 언어 속으로 성육신한 기독교 신앙

1. 성경번역의 배경: 19세기말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

첫 내한 선교사들에게 조선(한국)의 일상 생활문화는 “불편하고 불결하며 비위생적이고 가난함”으로 부딪쳐왔다. 선교사들은 선교현장인 조선의 일상과 투쟁하는 가운데서 싫든 좋든 간에 그 문화를 몸에 익혀야 했다. 그러한 그들은 몸에 배여 있는 모국(미국)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그 생활방식을 조선에서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다.

캐나다 출신 선교사 게일(James Scarth Gale)이 조선의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한 생활에 관하여 자세히 언급하자면, 본국에서 날마다 빵과 고기를 먹고 커피와 우유를 마시던 그가 이곳에서 쌀밥이나 거친 잡곡밥과 소금에 절인 배추(김치)와 고추장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다. 하루 세끼 식사야말로 그가 날마다 극복해야 할 선교현장의 음식문화였다. 또한, 의자와 침대생활에 익숙해 있는 그가 이곳에서 다리를 꼬고(양반다리) 방바닥에 앉는 일은 마치 고문당하는 체험이었다. 조금만 앉아 있어도 무릎과 엉덩이 뼈 그리고 발목 뼈가 끊어지듯 아파 왔다. 온돌방체험은 더욱 더 견뎌내기가 힘들었다. 방바닥이 마치 “빵 굽는 오븐”처럼 달구어져서 잠자는 사람이 “빵으로 구워지는” 느낌이었다. 뜨겁게 덥힌 방안에서 온 몸이 시달리다 문득 잠이 들면 악몽을 꾸는데, 게다가 실내의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사람의 맥박이 마구 뛰고 머리는 곤두서고 숨이 막혀 질식당할 것만 같았다.

해마다 여름이 오면 전염병이 도져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앓아눕고 목숨을 잃었다. 천연두와 콜레라가 가장 심각한 전염병이었다. 특히, 1887년에는 콜레라가 온 나라를 휩쓸어서 수 천 명이 쓰러졌다.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침에 멀쩡했던 사람이 정오에 사망하였고 또 한 가족 몇 명이 같은 날 사망하였다. 환자를 돌보던 선교사들은 자신도 전염병에 걸릴까봐 무서워 벌벌 떨었다. 한 번은 게일이 천연두의 발진으로 온 몸이 부르트 환자의 가정에 심방하였는데, 예배드리는 시간 내내 그는 이 질병이 자기에게 옮을까봐 두려워하였다. 그는 마치 죽음에 포위된 느낌이었다. 이렇게 지독한 질병과 전염병이 대체로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한 선교사들은 이 환경과 투쟁해야 했다. 따라서 질병퇴치와 위생청결이 선교활동의 주요한 과제였다.

2. 한글의 가치를 발견한 선교사들

열악한 선교환경에서 힘겨운 투쟁을 하던 몇몇 선교사들이 이 나라의 수준 높은 정신문화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나라의 일상이 불편하고 불결하며 비위생적인데 반(反)하여 이곳 정신문화의 수준은 대단히 높다는 점을 눈치 챘다. 겉으로 보이는 조선의 생활문화는 매우

초라하여 별로 볼 품이 없는데 그렇지만 그 내면에 들어있어 보이지 않는 정신문화의 수준은 매우 높다는 점을 알아챘다. 그는 이 나라 사람들이 본래 “책읽기를 좋아하는 민족”이고 “학문을 좋아하는 심성”을 가져서 매우 “높은 교육열”을 가졌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어서 그는 조선에서 발달된 학문(인문학)의 수준을 높이 보면서 “학문적 성과로 따져 본다면 조선의 (유)학자들의 업적이 예일대학이나 옥스포드대학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출신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차츰 조선의 정신문화를 ‘존중’하게 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교사 게일은 조선의 예절문화가 성경의 히브리문화와 친화력이 높다는 점을 발견했다. 성경의 다윗, 다니엘, 베드로, 그리고 바울 시대의 문화가 조선에 다시 살아난 듯 착각하게 했다. 이를테면, 다윗이 사울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듯이(삼상 24: 8) 조선 사람들도 그렇게 고개 숙여 절을 했다. 성경의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하며 인사했는데, 조선 사람들도 인사할 때마다 비슷한 뜻을 가진 ‘안녕’이라 인사했다. 이와 관련하여서, 성경의 내용이 “서양인에게 보다는도 조선인에게 훨씬 더 명료하게” 들려진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어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셨는데(마 9: 5-7), 이 말씀을 게일이 본국(캐나다)에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중한 병을 앓던 허약한 사람이 어떻게 거창하고 무거운 침대를 혼자서 지고 갈 수 있는지 매우 의아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조선에 와서야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곳의 침상은 서양의 침대가 아니라 아침저녁에 방바닥에다 간단히 개고 펴는 이부자리이기 때문이었다. 게일은 조선인의 관습과 언행에 배어있는 ‘체면문화’도 잘 이해했다. 그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체면 차리기에 익숙한 전형적인 조선의 인물과 같다고 보았다. 니고데모가 자기의 체면이 깎일까봐 인적이 드문 한 밤중에 예수를 찾아온 것이 아닌가? 이처럼 게일은 조선의 사회관습과 예절문화가 성경의 히브리문화와 친화력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게일이 조선 정신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그 문화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한글의 가치도 발견했다. 그는 감탄과 탄식을 한꺼번에 토해 냈다. 한글이야말로 누구나 “배우기 쉽고” 누구에게나 익히기 “간단한” 글인데, 그러나 한글창제 이후 이 나라에서 이 글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도리어 멀시만 당해 왔는데, “서기 1445년에 발명되어 조용히 먼지투성이를(뒤집어쓰고) 자신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서” 선교를 위해 “준비된” 아주 훌륭한 언어라고 감탄하였다.

다른 선교사들도 복음전파를 위한 한글의 가치를 발견했다. 이 점은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토착 언어인 한글로 증언하는 가운데서 그 복음이 조선의 정신문화 속으로 성육신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선교사에게 한글 배우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한 선교사들은 선교사역을 시작하면서 토착 언어인 한글을 배우느라 애쓰며 곤욕을 치러야 했다. 선교사의 한글학습을 위하여 매년 1 단계에서 3 단계에 이르는

학습과정이 개설되었다. 모든 선교사는 일 년에 3 차례 아주 엄격한 한글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했다. 당시에는 한불자전(韓佛字典)이 한글학습에 큰 도움을 주었다. 게일도 조선에 도착한 이후 3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한글을 익혔으며, 또한 날마다 한문공부를 했다.

게일은 한글문법을 연구하여 문법책(Grammatical Forms)을 출판하였다. 또 45,000단어를 정리한 한영자전(Korean-English Dictionary)도 출판하였다. 사전편찬은 선교를 위한 작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글 발전에 초석을 놓은 작업이기도 했다. 언더우드 역시 선교사의 한글학습에 필요한 사전을 만들었다.

그는 1885년부터 5년 동안 한글단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그는-여러 선교사들의 선행 작업을 바탕으로- 사전을 만들면서 한글맞춤법의 표준도 만들었다. 그는 한글의 단어를 낱말이 한불사전과 대조하여서 표준맞춤법을 만들었다. 이 사전이 완성되자 일 만 개의 단어와 동의어가 정리되었다. 물론, 이 방대한 작업을 혼자서 해낼 수가 없었다. 게일이 한영사전 제작 작업에 동참하였고 또 험버트는 영한사전 제작에 동참하였다. 드디어, 1890년 4월에 한영문법과 한영자전이 완성되었다. 사전의 제작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고 또 한글성경의 기초 작업이라고 본다.

3. 만주와 일본에서 선행된 한글 성경번역

이미, 중국 만주에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1877년 여름 중국 만주에서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번역자는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 소속 선교사 로스(John Ross)와 그의 한국어 선생인 의주에서 온 상인 이응찬(李應贊)이었다. 이들은 신약성경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하였는데, 한문성경 신약전서문리『新約全書文理』(1852년 번역)을 한글로 옮겼다. 이 무렵, 영구에서 로스를 만난 서상륜(徐相濬)이 신약성경번역(누가복음)에 참가했다. 그 이듬해(1879년) 초반 로스가 안식년 휴가로 귀국했고, 번역작업을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가 이어받았다. 의주출신 한국인 10여명이 신앙공동체를 이루고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성경번역에 참여한 한국인들 대다수는 의주에서 온 상인이었다. 이들은 서북지역 자립적 중산층을 형성했으며 한문과 중국어(만주어)에 능통한 학인(學人)이었다. 이들은 기독교 교리를 배우거나 세례를 받기 위해 로스와 매킨타이어를 찾아갔다가 번역자로 일했다.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여러 해 동안 성경번역에 참여했다. 현재 그들의 이름을 낱말이 파악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사람은 이응찬, 백홍준, 김진기, 서상륜, 서경조, 이성하, 이익세, 최성균 등이었다. 성경번역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간 그들은 권서 등으로 전도활동을 하였다. 헬라어 성경(원어 성경)을 참조하면서 번역이 진행되었다. 번역자들이(대표 이응찬) 한문성경에서 번역초안을 만들어 놓으면, 매킨타이어가 헬라어 성경을 대조하며 번역문을 검토하였고, 검토된 번역문을 선교사와 번역자들이 함께 살펴보고, 최종 수정된 원고를 이응찬이 정서하였다. 1881년 5월에 로스가

만주로 돌아왔다. 9월부터 로스는 매킨타이어와 한국인 번역자들이 작업한 번역원고를 수정하고 다듬는 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물이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년)였다. 1887년에는 신약 『예수성교전서』가 완간되었다.

일본에서 기독교 신앙인이 된 이수정이 이 나라에서 세례를 받고(1883년 5월) 미국 선교사 루미스(H. Loomis, 요코하마 주재 미국성서공회 일본지부의 총무)의 제안에 따라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한문문리성경을 저본으로 하여 일본어 성경을 참고하며 성경을 번역하였다. 한문문리 성경에다 이두식으로 토(吐)를 붙이는 『懸吐漢韓(현토향한) 신약성경』을 완성해 나갔다.

4. 국내에서 진행된 한글 신약성경번역

1885년 이래로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로스역과 이수정역을 인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언더우드도 로스역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1886년 4월, 그는 의주지역 방언으로 번역된 이 성경이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 무렵부터 선교사들 사이에서 소위 “로스역 논쟁”이 시작되었다. 로스역 성경판매의 실적과 사용 실태를 몇 해 동안 지켜 보는 동안에, 이 성경에 한문체가 많고 의주지역 방언으로 번역되었으며 또 인쇄상태가 썩 좋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이 역본의 인쇄를 중지하자는 결론이 났다. 이에, 성경번역사업의 책임이 서울 선교사들에게로 넘어왔다. 성경번역을 위하여 조직된 ‘상임성서위원회’(1887년)는 1890년에 로스역의 개정을 포기하고 성경을 새로 번역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고, 몇몇 개인들이 신약성경을 부분적으로 번역하였다. 1892년에 개인역으로 『마태복음전』, 『도전』이 발간되었다.

1893년 5월 16일, 이제까지 거의 실적이 없었던 ‘상임성서위원회’를 해체하고 상임성서실행위원회(1893-1903)를 조직했다. 이 위원회와 그 아래 소속된 번역자회가 채택한 성경원본은 옥스퍼드에서 발간된 팔머의 헬라어 신약성경(The Greek Testament with the Readings Adopted by the Revisers of the Authorized Version, ed. by E. Palmer, Oxford, 1881)을 저본으로 하고 대체로 영어성경 개역본(RV, 1882년판)과 흠정역 영어성경(KJV)을 사용하였다. 선교사들은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대본으로 삼아 번역하고, 한국인 조사들은 한문 문리(Delegates' Version: 文理)신약전서를 대본으로 번역하되 일본어 성경도 참고하였다. 성경번역에 참가한 한국인들은 최소한 7명이었다. 이들은 송순용(宋淳容), 조한규(趙閑奎), 최병헌(崔炳憲), 김명준(金明濬), 이창직(李昌植), 이원모(李源謨), 정동명(鄭東鳴), 홍준(洪竣) 등이었다. 이들은 한학에 조예가 깊었고, 대다수 서울이나 중부 지방 출신이었다. 로스역 번역자들이 한문과 중국어에 능한 서북지역(의주) 출신의 상인들이었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한국인 번역자들은 개인역 단계에서 한문문리신약전서를 비롯한 여러 한문성경들을 대본으로 한글 초역을 담당했다. 이들은 선교사를 도와 번역에 자

신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단어의 본디 뜻을 밝혀내고 문장이 쉽게 술술 읽히도록 동역하였다. 그러나 이들에게 시험역에 대한 표결권을 주지 않았다.

1896년까지 약 3년 동안 진행된 성경번역사업은 개인역 단계와 수정역 단계에 머물렀다. 1896년에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개인역으로 출간되었다. 이 무렵에 한국 개신교는 크게 부흥하고 있었다. 특히 청일전쟁(1894년) 이후에 신자의 수가 급증했다. 이와 함께 성경의 수요가 쇄도하였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성경번역자들은 공관복음서,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번역해 나갔다. 1900년 5월에 신약성경 전체의 2/3가량을 번역자회의 공식적 의결을 거쳐 시험역으로 내어 놓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만 시험역이었고, 나머지는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역과 개인역 단계의 서신서들을 함께 묶어서 임시방편이나마 신약성경 단권을(『신약전서』) 출간하였다. 1900년 5월 8일은 성서공회주일이었다.

5. 한글로 번역된 성경 : “구역(舊譯)”

신약성경을 단권으로 출판한 이후, 성경번역사업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이미 출간한 신약성경을 공인역으로 만드는 작업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부터 비로소 구약성경을 번역하게 되었다. 아직까지 『시편촬요』외에는 번역된 구약성경이 없었다. 신약성경의 개정작업은, 선교사 번역자들의 잇단 안식년 휴가 때문에, 1902년 10월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설상가상, 그 해 6월 번역자 독회에 참석하기 위해 목포를 향해 떠났던 아펜젤러(H. G. Appenzeller)가 조사 조한규와 함께 군산 앞바다에서 사고로 순직하였고 이와 함께 번역에 필요한 귀중한 자료도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 10월부터 선교사 게일, 언더우드, 그리고 레이놀즈(W. D. Reynolds)가 개정작업에 전념하였다. 드디어, 1904년 5월에 신약전서의 개정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 원고에서 무려 1,000개 이상의 오류와 철자법의 혼동이 발견되었기에, 심히 불완전한 신약성경 공인역이 출판되었다.

1905년 2월 15일부터 번역자회는 미완성의 공인역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1년 동안 추진되었다. 번역을 위한 저본은 1881년에 옥스퍼드에서 발간된 헬라어 신약성경이었다. 1906년에 공인역 『신약전서』 2만부가 발간되었다. 이 신약성경은 1938년 『신약개역』이 발간될 때까지 30여 년간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했고, 개역(1938년판)과 구분하기 위하여 “구역(舊譯)”이라 했다.

1900년에 『신약전서』가 단권으로 묶여 나오고 1904년 임시역 신약전서가 발간되는 과정에서, 한글보다는 한문에 익숙한 양반지식층 기독교인들을 배려하는 국한문혼용본 신약전서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1903년까지만 해도 다수의 선교사들은 네비우스 선교정책에 따른 한글 성경번역에 만족하고자 했는데, 언더우드와 게일이 국한문혼용본을 주장하

였다. 두 선교사는 이 당시 독립협회 사건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양반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1904년 7월 27일 실험적 의미를 담아 신약성경 복음서(공관복음)의 국한문혼용본이 출판되도록 했다. 번역자는 유성준(兪星濬)이었다. 1906년 4월에 영국성서공회와 미국성서공회가 함께 신약전서 『新約全書국한문』을 발간했다. 발간 직후에 이 성경을 황제 고종에게 헌정하였다.

구약성경의 한글번역은 신약성경의 번역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다. 1897년부터 구약성경이 부분적으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미국성서공회의 권서였던 피터즈(Alexander Albert Pieters)가 그 해 7월에 시편번역을 시작했고, 또 이 때 발간된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개인적으로 번역되어 실렸다. 1899년에 상임성서실행위원회가 번역자들(아펜젤러, 레이놀즈(William Davis Reynolds), 게일, 스크랜튼(W. B. Scranton) 등)에게 각각 번역할 부분을 나누어 주었다. 그 이듬해 2월에 게일이 사무엘상·하의 번역을, 아펜젤러가 창세기의 번역을, 언더우드가 시편의 번역을 개인적으로 완성하였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번역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구약성경의 본격적인 번역은 1904년 10월부터 신약성경의 공인역을 출판한 다음에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이 번역의 수정작업 때문에, 또 다시 1년 가까이 구약성경의 번역이 뒤로 미루어졌다. 이러한 가운데서, 1906년에 그나마도 창세기와 시편의 번역이 완성되어서 출간되었다.

부진한 구약성경의 번역에 박차를 가하고자, 1907년 봄에 한국인 번역조사 이창직과 김정삼이 선교사 레이놀즈와 함께 번역위원(3명)으로 임명되었다. 이것은 한국 장로교회의 첫 목사 안수(1907년, 7명)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지금까지는 한국인 번역조사들에게 발언권만 주고 표결권을 주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이들이 선교사들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일하였다. 번역위원들이 열심히 번역하여 그 해 6월까지 출애굽기의 번역을 마쳤다. 지난 해(1906년) 출간된 창세기와 시편번역에 이어서, 잠언, 출애굽기, 사무엘상·하, 말라기를 출간하였다. 1909년까지 레이놀즈를 비롯한 번역위원들이 에스더, 아가, 에스겔, 다니엘의 번역을 마쳤고, 게일은 욥기와 호세아를 번역하였다. 이어서 게일은 예레미야서를 완역하였다. 언더우드는 소선지서를 번역하여 레이놀즈에게 보냈다. 1910년 봄, 드디어 구약성경의 번역이 완성되었다.

1911년에 『구약전서』가 출간되었다. 2,650면의 방대한 분량이라 상하 2권으로 출판되었다(상권은 창세기-역대하(1,350면), 하권은 에스라-말라기(1,300면)). 1911년에 완성된 구약전서를 1906년에 공인된 신약전서와 함께 일반적으로 “구역(舊譯)”이라 부르는데, 1938년과 1956년 그리고 1961년에 발간된 “개역(改譯)”성경과 대비되었기 때문이다.

6. 새로 번역한 “개역”성경(1938)

1911년 구약성경 한글번역이 완성되어 출판됨으로써 신구약 한글성경이 교인들 손에 들려졌다. 그런데 벌써부터 성경의 개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신약성경은 그동안 두 번에 걸쳐(1904, 1906) 개정작업을 하였기에 그런대로 만족할 수 있었던 반면, 구약성경은 대부분 1907년부터 3년 동안 짧은 기간에 번역이 진행되었고, 게다가 번역자들이 개별적으로 작업하였으므로 공동의 수정작업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구약성경의 개역작업을 먼저 착수하게 되었다.

구약성경이 출판된 직후에, 구약 ‘개역사회’(The Board of Revisers)가 구성되었다. 개역작업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잦은 위원 교체와 사임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가령, 레이놀즈는 이제까지 15년 동안 성경번역 작업에 매달려 왔으므로 심신이 지쳐있었기에 위원직을 사임하였다.

그 대신 자문역을 맡았다. 1916년에는 성경번역에 가장 오랫동안 참여해 온 언더우드가 사망하였다. 1920년 호주장로교 소속 엔겔(Gelson Engel)이 개역위원으로 들어왔고 또 미국 북장로교의 어더만(Walter C. Erdman)이 위원으로 들어왔다. 게다가 위원회의 번역방침을 둘러싸고 갈등과 불화가 일어났다. 언더우드의 사망이후, 게일이 위원회의 회장직을 맡았는데 그는 “조선어풍(朝鮮語風)” 번역을 추구했다. 이것이 다른 몇몇 위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결국, 게일이 스스로 위원직을 사임하였다. 개역작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1926년 히브리 성경에 능통한 피터즈, 미국에서 신학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장로회신학교(평양) 교수로 취임한 남궁혁(南宮赫),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구약을 전공하고 돌아온 김관식(金觀植), 베어드의 조수였던 김인준(金仁俊)이 위원으로 들어왔다. 그러자 개역작업이 활발해졌다. 개정작업을 1931년 이전에는 베어드가 주관했고, 그 이후에는 피터즈가 주관했다.

구약성경의 개정작업은 이렇게 진행되었다. 1925년 창세기의 개역이 마무리되어 인쇄되었고, 1926년에는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마무리되었으며, 1930년에는 구약 39권 중 17권의 개역작업을 완료하고 발간하였다. 마침내, 1936년 봄 모든 작업을 끝마쳤고 그 해에 『구약전서 역』이 발행되었다. 1936년 일단 완성된 개역 구약성경은 다시 일부 수정되어 1938년 발간되었다. 시작한 지 25년 만에 마무리되었다. 이 작업에 참여한 번역자 수는 선교사 11명 한국인 4명(특히 이원모와 김인준)이었다.

신약성경의 개역작업은 1926년 신약 개역사회가 조직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 남장로교의 윈(S. D. Winn), 호주 장로교의 컨닝햄(Frank William Cunningham), 북 장로교의 로스(Cyril Ross, 노세영)가 개역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 작업이 1937년에 마쳐졌다. 그 해에 단편으로 4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인쇄되어 출간되었고, 그 이듬해에 개역된 『신약 개역』이 발행되었으며 신·구약이 합본되어 『성경 개역』이 발행되었다.

7. 성경 번역의 수정작업(1948년 이후 현재까지)

1948년 이후에 한글 개역성경 수정작업이 착수되었고, 1961년 『개역성경전서』가 출간되었다. 이 성경을 한국 개신교가 최근까지(『개역개정판성경전서』가 출간되기까지) 널리 사용해 왔는데 “강대용 성경”(또는 “예배용 성경”)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받았다. 『개역성경』(1938년판)을 개정하기 위해 1983년부터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고, 1993년 8월에 대한성서공회 주관으로 한국 개신교 17개 교단 대표들(성서학자, 목회자, 국어학자 등)로 구성된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개정감수위원회’가 조직되었다. 1995년 11월에 『개역개정판』 신약이 먼저 출판되었다. 그 이후 구약 개정작업이 1997년 6월에 마무리되었고, 11월에 『성경전서개역개정판』 2,000부가 감수용(비매품)으로 출판되었다.

이 성경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1998년 8월 말에 『성경전서개역개정판』 초판이 발행되었다. 개역개정에 사용된 원전 성경은 구약 스투트가르트 히브리 성경(BHS)을 신약 네슬레-알란트(Nestle-Aland)판을 사용했다. 그런데, 초판과 재판(2000년)에서 몇몇 실수가 발견되고 문제점들이 제기되어서 수정작업을 거친 제 3판(2003년)과 제4판(2006년)이 발간되었다.

8. 정리

한국 개신교의 역사 속에서 한글 성경번역은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다. 성경번역의 예비작업으로 선교사 로스 등이 『한국어 교본』(Corean Primer)을 발간하였다(1877년). 게일과 언더우드 등은 한영문법(韓英文法)과 한영자전(韓英字典)을 출판하였는데, 이것이 한글의 발전에 토대가 되었다. 그 이후에 진행된 성경의 한글번역은 이 땅에 복음이 한국인의 심성과 한국의 정신문화 속으로 뿌리를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882년에 출간된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에서부터 2006년에 출간된 『개역 개정판 성경전서』(제 4판)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는 성경을 여러 차례 새롭게 번역하였다. 이러한 성경번역의 역사는 2종의 의미를 품고 있다. 한 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경 중심의 한국 교회’를 확인하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성경의 ‘원문’이 한 차례의 번역으로 그 뜻을 완벽하게 옮길 수 없으니 계속 번역작업을 착수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 준다. 이 점에서, 성경원문에 철저히 하려는 번역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리라 본다.

인용도서 : 임희국, 『한국 장로교회 130년. 기다림과 서두름의 역사』,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3.





사회선교와 공흥사역

강사 : 노규석 목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 마태복음 5:13-16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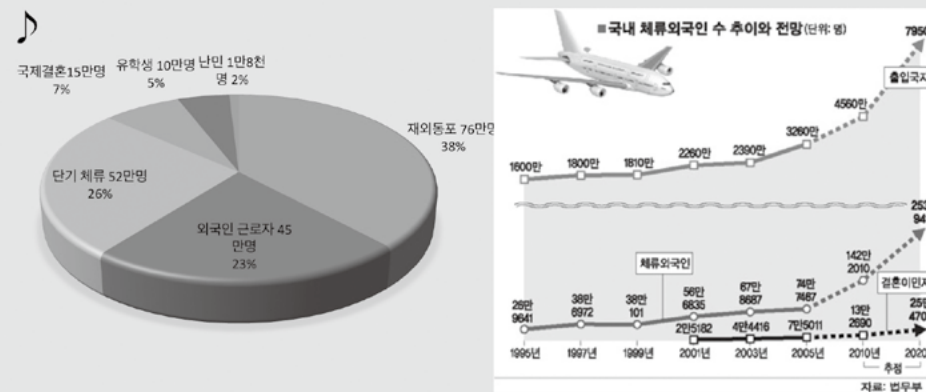
나그네 시절을 기억함 | 신명기 10:19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주민 선교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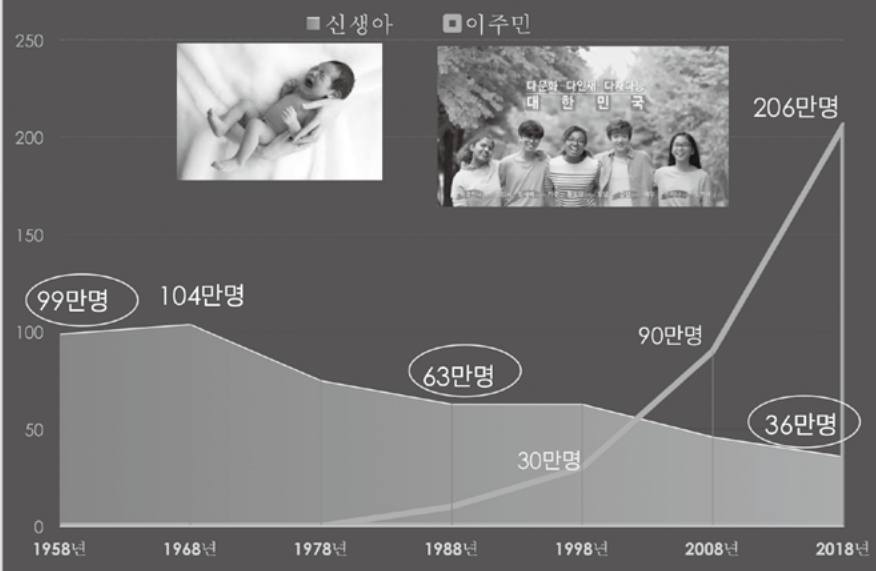
◦ 국내 거주 이주민 204개국, 200만명 (2016년 6월)

◦ 국제 결혼 (15만명), 유학생 (10만명), 국내 체류 난민 (1만 8천명)



(10년마다 2.5배로 증가 2025년에는 4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2018년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



이주민 선교 신학

“하나님은 나그네의 보호자입니다.”

시편 146:9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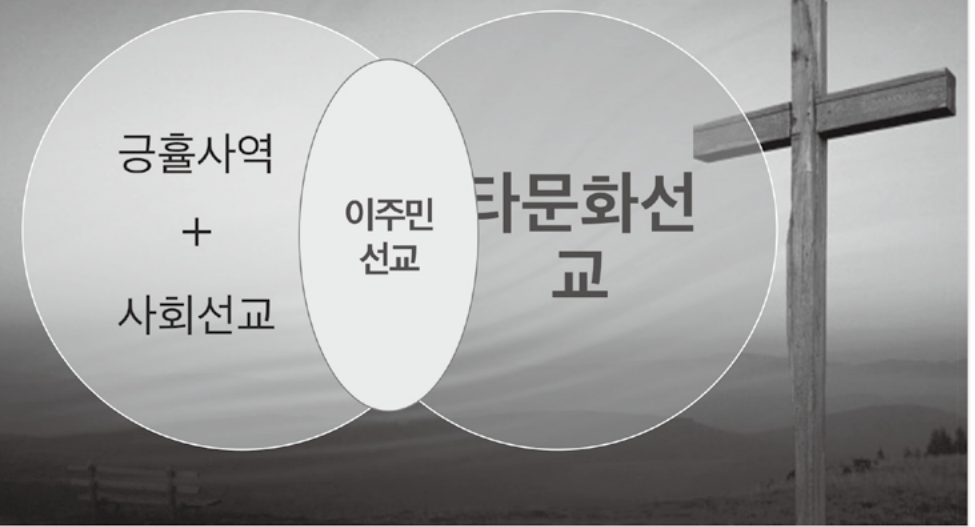
출애굽기 23:9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신명기 10:19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주민 선교는...융합선교



스가랴 8:22~23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대한민국)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임마누엘)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누가복음 4:18~19”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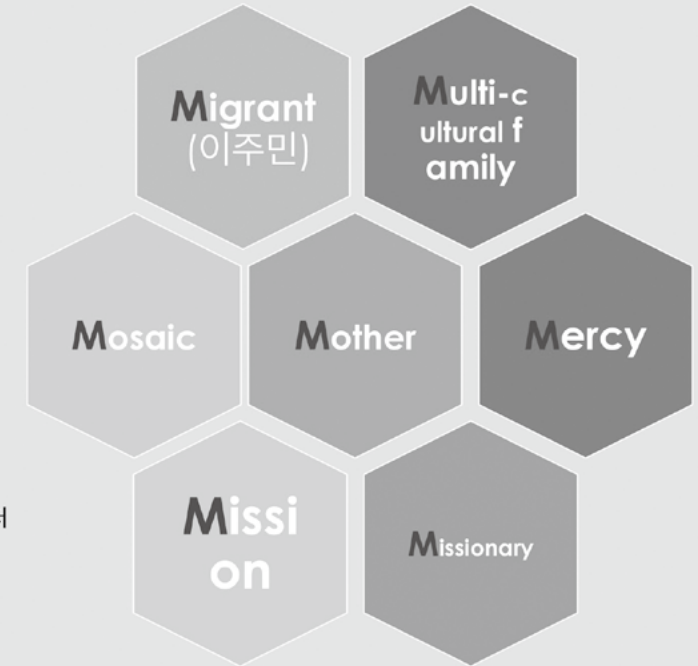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눅 4:18~19)

온누리교회의 이주민 선교

M 이란?

- 온누리M미션은 2000선교 산하의 이주민 사역본부
- 온누리M센터는 온누리M미션 산하의 지역별 이주민 선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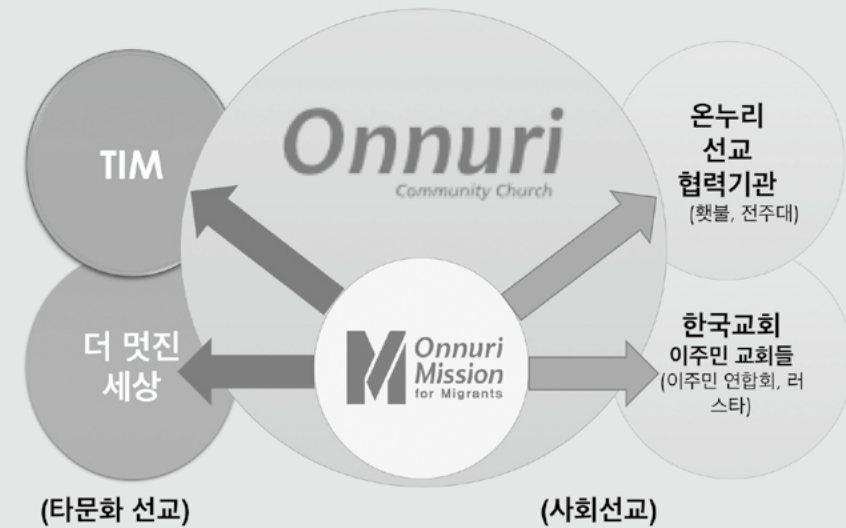


Onnuri M mission (since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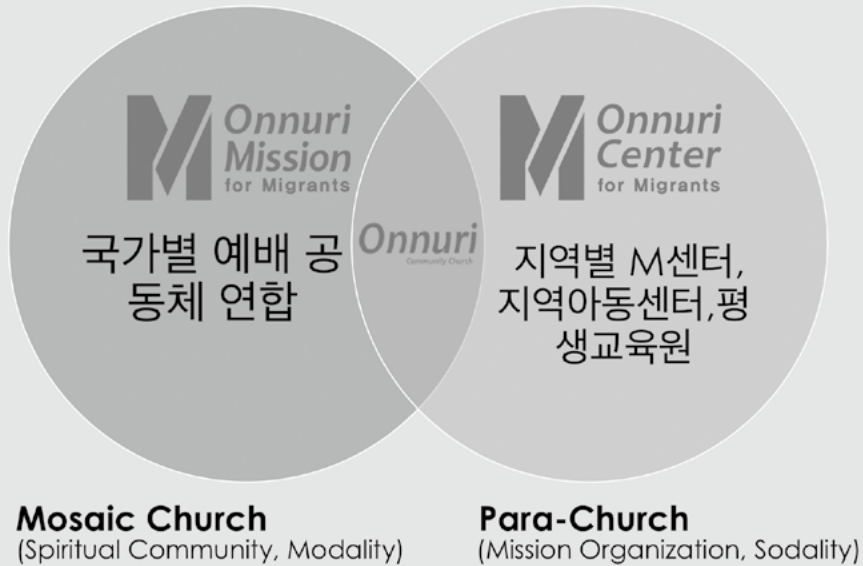


1. M – IDENTITY

온누리 M 미션은... 온누리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선교 단체



2. M – Structure



M미션의 열매들 = 28 + 500 + 10,000

역파송 선교사

28명의 역파송 선교사가
13개국으로 TIM과 '더멋진 세상'을 통해 역파송됨.

세례 및 역파송 외국인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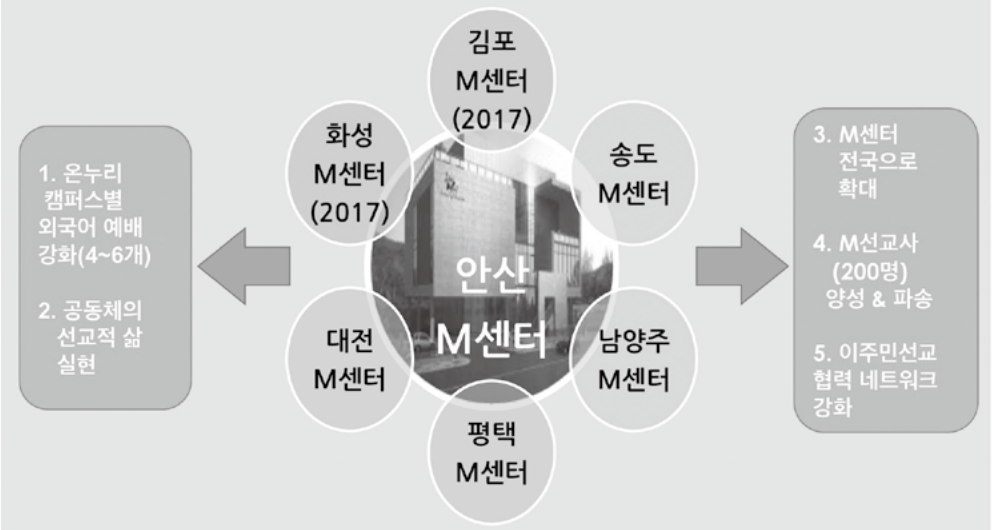
25개국 500명의 외국인 성도가 세례를 받았고,
30여개국 10,000여명의 외국인 성도들이 본국으로 귀국함.

파송 지역	파송 선교사	사역 내용	파송일
1	네팔 K.B. 라이 목사	교회 개척(에브른교회)	1999. 11
2	파키스탄 김 목사	교회 개척 사역	1999. 4
3	파키스탄 매불 목사	고아원 사역	1999. 4
4	미얀마 아양 목사	고아원 사역, 학원	1999. 4
5	미얀마 뚝재우 목사	교회 개척, 디말족 사역	2003. 2
6	인도 A(아지) 목사	교회개척, 고아원, 학원사역	2005. 3
7	네팔 필립 목사	교회개척	2005. 6
8	스리랑카 사시 목사	교회개척, 제자양육	2007. 9
9	이집트 A(티모티) 목사	교회개척, NGO사역	2008. 7
10	몽골 가나 목사	교회개척	2009. 1
11	인도 M(마크) 목사	교회개척, 신학교	2009. 1
12	이라크 M(말라드)전도사	교회개척, 제자양육	2009. 1
13	이라크 히바 사모	목사님 사모	2009. 1
14	이라크 B(비사르) 전도사	교회개척, 제자양육	2009.12.24
15	인도 A(아보노) 목사	청년사역	2009. 1
16	베트남 푸형 목사	리더십 양성, 성경학교	2009. 1
17	파키스탄 R(라픽) 목사	교회개척	2010. 1
18	스리랑카 사넛 목사	교회개척, 제자양육	2010. 4
19	네팔 조경근 목사	교회 개척, ANVC비전센터	2011. 1
20	부탄 던 라스 목사	교회개척, 제자양육	2011.01.26
21	네팔 티모티 목사	신학교 사역	2012. 1
22	인도 티유 전도사	실용지역 교회 개척, 제자양육	2012. 1
23	필리핀 유충선 목사	현재 인어 과정	2013. 1
24	몽골 헨데 전도사	교회사역, 찬양사역	2016. 3
25	몽골 아치트 전도사	교회 사역	2016. 3
26	르완다 김연경 선교사	더 멋진 세상 (NGO)	2016. 2
27	몽골 헨드마 목사	교회개척	2016. 7
28	세네갈 지영아 선교사	더 멋진 세상 (NGO)	2016. 8

3. M – Vision



온누리 M센터 6개 거점 구축 (~2020년)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주민 선교

2) 1 다락방 + 1 사역 (다락방 & 순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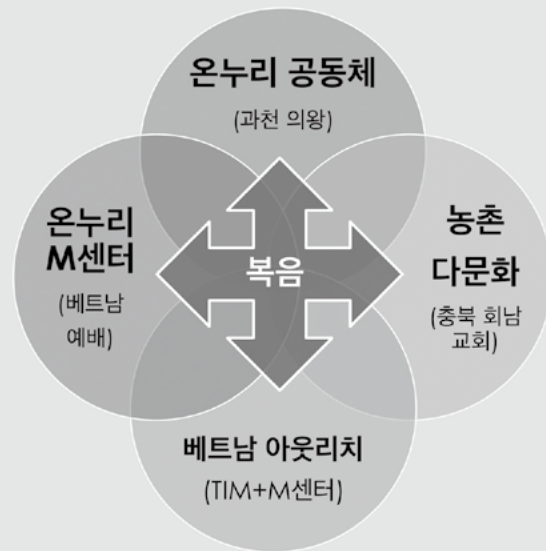
- 다락방 & 순모임
 - 1개 외국어 예배 / 이주민교회 섬김 (월/분기 1회)
 - 1명의 신학생 입양
 - 다문화 가정 입양



- 사역 내용
 - 함께 예배 드리기 (특순)
 - 함께 식사하기
 - 명절, 야외예배, 체육대회 초대하기
 - 아웃리치 함께 가기

- 좋은 모델
 - 영등포구로: 이라크 신학생 입양
 - 하나공동체: 몽골 설날 수련회
 - 서초 B, OCC, 가정사역: 설거지 봉사
 - 성동광진: 의료봉사
 - 양재: 안양대 여학당 유학생 섬김
 - 천양사역: 경기북부 이주민 음악회

1) 이주민 융합 선교 (공동체 차원)



참여 가능한 이주민 사역들



한글 학교
*각 예배별 / TOPIK 반 교사

서빙고 한글학교



의료 진료
주일 오후
(성동광진, 수원, 양재 CMN)



**다문화 평생
교육원
문화 교실**
*각 강좌별 교사 필요함.



설날 국가별 수련회 (2017, 몽골수련회 + 하나 공동체)



추석 이주민 연합 순례회
Harvest



해외 심방 아웃리치 (M센터 출신)
- 네팔 헤브론 교회



연합 세례식
(서초 B 공동체)



딜립목사 가정교회



스리랑카 심방 아웃리치

귀국형제들 모임

누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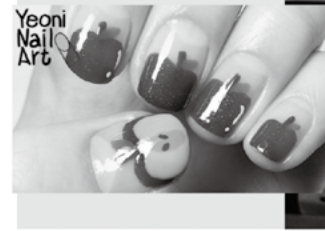
국가별 맞춤 전도 집회



2016년 12월 네 팔
2017년 1월 몽골
5월 미얀마
9월 필리핀
11월 중국



다문화 평생 교육 원 문화 교원



안산 M센터 온누리 지역 아동 센터 (교사, 자원봉사 / 양재 여성사역)



서빙고 한글학교



한글 학교

*각 예비별 / TOPIK 반

국가별 한글학교



안산 TOPIK 준비반



토요 문화 강좌 (12주 과정)



온누리 M 센터
 온누리 M Center
 Weekend Cultural Workshop Spring 2017
 Registrations are now open!

수업과목 : Subjects

피아노 Piano	기타 Guitar	바둑 Baduk	꽃꽂이 Flower Arrangement
엑셀 Excel	한국요리 Korean Cooking	탁구 Table Tennis	

대상자 : 외국인 유학생, 이주민, 다문화 가정
 Foreign students, Immigrants, Multicultural citize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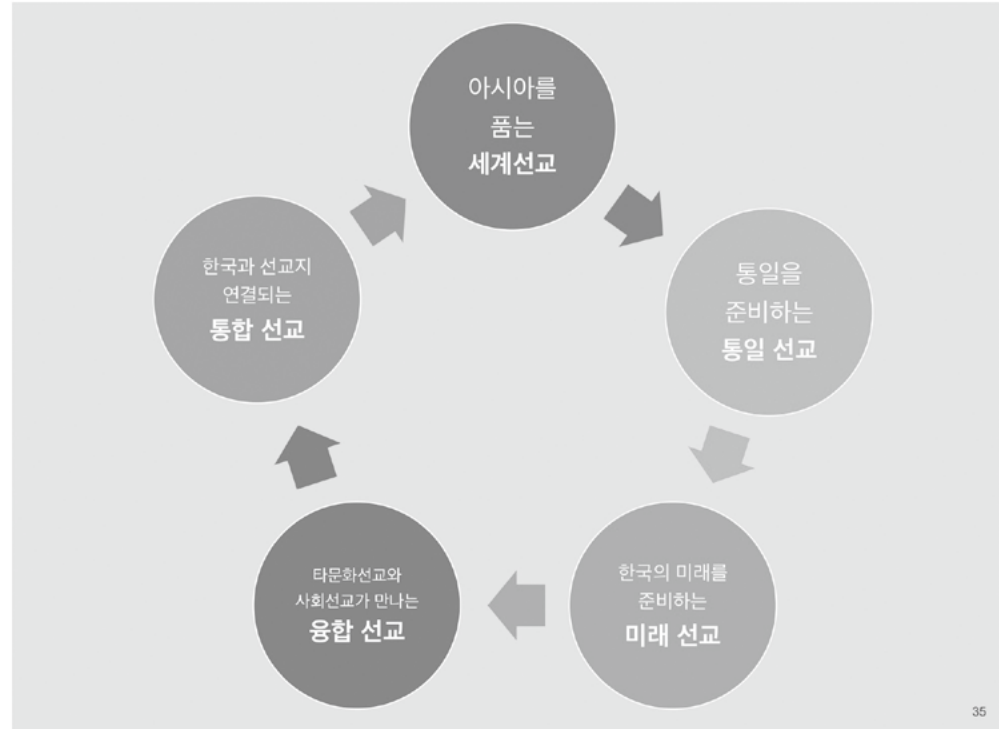
수업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Every Saturday
 1교시 (3:30~4:50pm) / 2교시 (5:20~6:40pm)
 *2교시 및 휴학자의 경우 / We provide snacks and drink.
 *휴간 : 5월 12일 휴학합니다. / PLease refer to the notice.

기간 : 2017.3.25 ~ 2017.6.10
과정 : (12주 과정 / 12 weeks)

장소 : 온누리 M 센터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동 950-2)
 Onnuri M Center @ Sancheon-ro, Danwon-Gu, Ansan-si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
 To Apply : Complete the registration form & submit to staff

Questions? 김재현 팀장 010-2724-4563
 양옥진 전도사 010-3937-3927



이주민 선교는...



쇄빙선 (Ice-breaker)
 한국 교회의 빙하기에 새로운 길을 만드는
 Mission Church의 모델 제시
온누리교회



바람직한 가정과 장로의 역할

강사 : 김성묵 장로

마태복음 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19-20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나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I. 들어가는 말

1. 인생의 주기

30/30/30

2. 가정이란

- (1) 가정은 인생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 (2) 가정은 국가의 심장입니다.
- (3) 가정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II. 바람직한 가정

1. 우선 순위 (가정에 헌신)

(1)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일/가족/친구/건강/영혼

(2) 가정의 우선순위

- 부모
- 부부
- 자녀

2. 의사 소통

(1) 관계 방정식(인생 방정식)

접근	자극	감정/자유의지
반응	반응	적절한 반응 과격한 반응 영똥한 반응
관계	삶	죄성 / 상처 / 문화



(2) 부부관계

① 결혼에 관련된 잘못된 신화

-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 살았더라.

부부의 유형	- 갈등을 억누르는 부부
	- 갈등을 회피하는 부부
	- 갈등을 극복하는 부부

② 성격차이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접근	- 감정 / 자유의지
반응	- 불화 / 갈등
관계	- 감정 : 부정적 강화 - 관계 : 상호 경직

③ 부부관계의 묘약

- 남자 : RESPECT - 인정. 격려. 칭찬
- 여자 : LOVE (CARE) - 염려. 배려. 관심

3. 삶의 목적과 방향

III. 장로의 역할

1. 가정

2. 교회

3. 사회

- 3가지 마음
- ① 첫 마음
- ② 열린 마음
- ③ 아버지의 마음



IV. 맺는말

